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2015. 8

오승연 · 김유미



##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해체로 가구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 고령화는 사망위험 보장에서 생존위험 보장으로 위험보장 수요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가구구조의 변화는 핵심 보험 가입 계층이었던 청·장년층과 자녀를 둔 가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한편, 고령층과 1인 가구를 새로운 보험 소비 계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동안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주로 거시적인 환경변화와 보험의 공급측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우리원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험산업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험산업이 보험 수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데 본 보고서가 기초 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8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 목차

---

요약 / 1

I. 서론 /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 10
2. 선행연구 / 11
3. 연구내용 및 방법 / 11

II.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 13

1.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 13
2.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 21

III.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및 변화 추이 / 26

1.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상품별 주요 가입층 분석 / 26
2. 가구의 보험가입 변화 추이 / 30
3. 보험가입 여력의 변화 / 34

IV. 가구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 분석 / 43

1. 선행연구 / 43
2. 실증분석 / 45

V.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59

1. 요인분해법(Decomposition Method) / 59
2.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 / 60
3.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 64

VI. 요약 및 시사점 / 67

| 참고문헌 | / 70

| 부록 | / 74

## ■ 표 차례

---

- 〈표 II-1〉 가족 생애주기 / 14
- 〈표 II-2〉 가구원 수 비중의 변화(1990~2035년) / 16
- 〈표 II-3〉 주요국의 가구 구성 비교 / 20
- 〈표 II-4〉 주요국의 가구구조 변화 추이 비교 / 21
- 〈표 IV-1〉 가구 구성의 변화(2001~2012년) / 49
- 〈표 IV-2〉 가구 유형의 전이확률(2001~2002년, 2011~2012년) / 50
- 〈표 IV-3〉 가구의 보험 가입 결정 요인(2001~2012년) / 54
- 〈표 IV-4〉 보험 종류별 가입 여부 결정 요인(2001~2012년) / 57
- 〈표 IV-5〉 보험 종류별 납입보험료 결정 요인(2001~2012년) / 58
- 〈표 V-1〉 변수별 분해 분석 결과 / 64
- 〈표 부록 I-1〉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 74
- 〈표 부록 I-2〉 가구 유형별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 75
- 〈표 부록 I-3〉 가구주 연령별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 77
- 〈표 부록 II-1〉 가구 유형의 조건부 전이확률(2001~2012년) / 79

## ■ 그림 차례

---

- 〈요약 그림 1〉 보험 수요의 변화 요인 / 3
- 〈요약 그림 2〉 반사실적 분석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 8
- 〈그림 II-1〉 가구 유형의 변화(1990~2035년) / 17
- 〈그림 II-2〉 성별·연령별 1인 가구 추이(2005년, 2010년) / 18
- 〈그림 II-3〉 가구주의 여성화(1990~2035년) / 18
- 〈그림 II-4〉 가구주의 노령화(1990~2035년) / 19
- 〈그림 II-5〉 의사결정 본 단위로서의 가구 / 22
- 〈그림 II-6〉 보험 수요 변화 요인 / 25
- 〈그림 III-1〉 연령별 보험 가입률(2014년) / 27
- 〈그림 III-2〉 가구 유형별 보험 가입률(2014년) / 28
- 〈그림 III-3〉 소득 수준별 월 납입보험료와 계약 건수 / 29
- 〈그림 III-4〉 보험가입 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2001~2012년) / 31
- 〈그림 III-5〉 보험가입 가구의 유형별 분포 변화(2001~2012년) / 31
- 〈그림 III-6〉 보험가입 가구의 납입보험료 추이(2001~2012년) / 32
- 〈그림 III-7〉 연령별 가구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 33
- 〈그림 III-8〉 유형별 가구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 33
- 〈그림 III-9〉 연령별 보장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 34
- 〈그림 III-10〉 연령별 저축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 34
- 〈그림 III-11〉 유형별 보장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 34
- 〈그림 III-12〉 유형별 저축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 34
- 〈그림 III-13〉 연령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2001~2012년) / 35
- 〈그림 III-14〉 유형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2001~2012년) / 35
- 〈그림 III-15〉 소득구간별 보험 가입률 변화(2001~2012년) / 36
- 〈그림 III-16〉 소득구간별 납입보험료 비중 변화(2001~2012년) / 36
- 〈그림 III-17〉 가구의 소득분포 변화 추이(2001~2012년) / 37
- 〈그림 III-18〉 소득계층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2001~2012년) / 37

## ■ 그림 차례

---

- 〈그림 Ⅲ-19〉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가구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 37
- 〈그림 Ⅲ-20〉 소득계층별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2001~2012년) / 37
- 〈그림 Ⅲ-21〉 보험가입 금액별 신계약 건수의 비중(2007~2012년) / 38
- 〈그림 Ⅲ-22〉 가구주 연령별 소득계층의 변화(2001년, 2012년) / 39
- 〈그림 Ⅲ-23〉 코호트별 · 연령별 소득 추이(2001~2012년) / 40
- 〈그림 Ⅲ-24〉 코호트별 · 연령별 연간 보험료 추이(2001~2012년) / 41
- 〈그림 Ⅲ-25〉 코호트별 · 연령별 보험 가입률 추이(2001~2012년) / 41
- 〈그림 Ⅲ-26〉 가구 유형별 소득계층의 변화(2001년, 2012년) / 42
- 〈그림 IV-1〉 주요 설명 변수 / 47
- 〈그림 IV-2〉 가구주 성별 구성비의 변화 추이(2001~2012년) / 51
- 〈그림 IV-3〉 가구주 연령별 비중의 변화 추이(2001~2012년) / 51
- 〈그림 V-1〉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 / 63
- 〈그림 V-2〉 반사실적 분석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 66

# The Effects of Changes in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on Demand for Insurance

Rapidly ageing population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challenges that a society faces today. The insurance industry, in particular, bears the brunt of demographic changes. It is crucial for insurer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paradigm changes of consumer demand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s on consumer demand with focus on consumers' subjective and objective risk, consumers' affordability of insurance, and the quantitative effects on the total insurance premiums.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quantitativ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s on the total insurance premiums is substantial. Second, demographic changes affect various types of insurance differently. Since population aging shifts consumers' demand for risk protection from mortality to longevity, the negative effect will be greater for whole life insurance compared to saving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Third, the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reduce the size of the main consumer group and their purchasing power has weakened. Insurers need to meet the demand of the new consumer group; elderly household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Fourth, consumer market segmentation deepens between the two groups, affluent mature market and mass market consisting of the young and the middle class. Thus, the marketing strategy for the two groups should be different: customized products for the affluent market, and cheap and simple products for the mass market.



## 요약

### I. 서론

-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험 소비자의 주·객관적 위험보장 수요를 변화시켜 보험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공급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거시적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음.
  -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 상품별 또는 가구 유형별로 영향의 정도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변화 패턴과 추이를 살펴봐야 함.
  
- 본 연구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상품 및 판매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보험 수요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보험 상품별로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 유형에 따른 가입률과 납입보험료의 변화 추이를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최근 10여 년 동안 보험 가입 규모의 변화에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요인분해법(Decomposition Method)과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이용해 정량 분석함.

## II.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 1.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 가구구조 변화의 요인은 크게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와 혼인 및 출산 등 가족 형성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볼 수 있음.
  -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소자녀화, 혼인을 저하, 이혼율 증가는 1인 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 가구의 증가, 한 부모 가구(특히, 여성 한 부모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구 유형은 1인화, 여성화, 노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990년 9%에 불과하던 1인 가구의 비중은 2012년에 들어와 25.3%로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1990년 15.7%였으나 2010년에는 25.7%로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35.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전체 가구 가운데 노인 부부와 노인 단독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2.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 보험 상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객관적 위험보장 수요와 주관적 위험보장 수요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잠재적 보험 수요는 소비자의 보험 구매력 그리고 해당 상품의 공급 여부에 따라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짐.
- 가구의 객관적 위험보장 수요는 과거 사망보장에서 생존보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부부+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 그리고 1인 및 부부 가구의 증가로 대변되는 가구구조의 변화는 부양가족을 갖는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켜 소득보장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임.

○ 은퇴 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에 급격히 노출됨에 따라 의료비 보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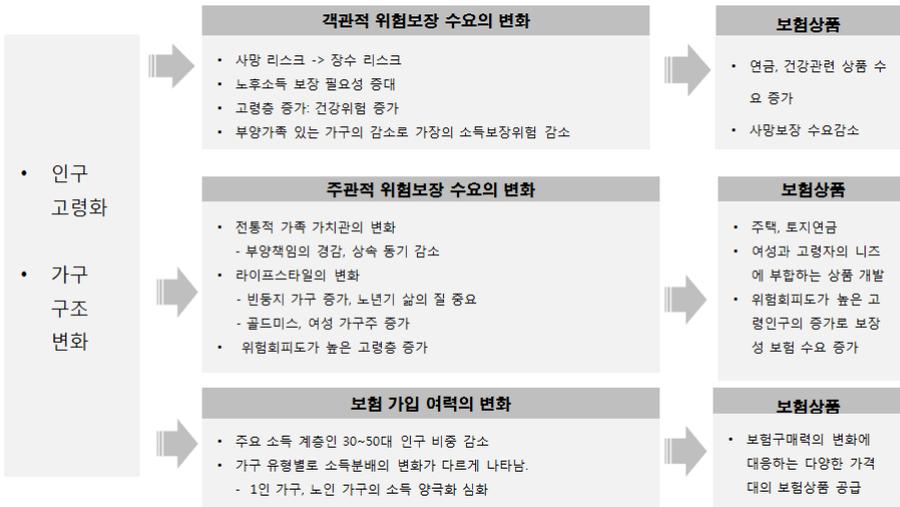
■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변화, 새로운 구매층의 등장, 고령화에 따른 위험기피도의 변화 등으로 주관적인 위험보장 수요가 변하고 있음.

○ 상속동기의 감소는 토지나 주택연금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 보험 구매력이 있는 골드미스와 빈둥지 가구의 등장은 새로운 니즈를 창출할 것임.

■ 보험의 주요 가입층은 위험보장 수요와 구매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30~50대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이들의 보험구매력을 약화시켜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요약 그림 1〉 보험 수요의 변화 요인



### Ⅲ.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및 변화 추이

#### 1.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상품별 주요 가입층 분석

- 가구의 생명보험 상품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저축성보험이었으며 사망보장보험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핵심 보험 가입층은 연령별로는 35~54세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임.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는데, 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상품은 사망보장보험이며, 질병보장보험은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임.
  - 보험 상품별로 가구주의 연령별, 유형별 보험 가입률의 변동계수를 분석한 결과, 사망보장상품의 변동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질병보장상품의 변동계수는 가장 낮게 나타남.
  - 보험 가입률의 변동계수 값이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나 가구 유형의 차이에 따른 가입률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병보장보험 상품이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의 보험가입 변화 추이

- 보험 가입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 및 가구 유형별 비중 변화 추이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54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음.
  - 유형별로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부부+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보험에 가입한 가구들의 연평균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증가율은 45~54세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던 반면, 34세 이하에서 증가폭이 가장 작게 나타남.
  - 중·고령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보험료 증가율은 중·고령층의 경제력 개선과 더불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과거에 비해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가구의 보험 가입 여력은 핵심 가입층인 35~54세와 부부+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악화된 반면, 고령층과 1인 및 부부 가구에서 개선되고 있어 이들이 주요한 보험 소비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음.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4세 이하에서 가입률이 대폭 감소하였고, 35~54세의 경우 소폭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인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가입률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코호트별 보험 가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 노인 세대에 비해 예비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수준과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음.
  -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자녀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보험 가입률이 감소한 반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그리고 한 부모 가구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음.
  - 보험 가입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연평균 납입보험료 추이를 보면 부유층의 보험료 증가가 두드러지며, 그 결과 전체 보험료에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빈곤층과 중산층에서 감소하였음.

#### IV. 가구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 분석

- 노동패널 2001~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음.
  - 보험 상품은 한 번 구매하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소비(위험을 보장받음)한다는 의미에서 내구재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내구재 수요함수를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되는 Cragg의 허들모형을 사용하였음.
  - 핵심 설명 변수는 가구주 연령과 가구 유형이며, 그 외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 자산 등의 경제변수와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등의 변수를 설명 변수로 추가하였음.
  
-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 연령은 보험 가입과 역 U자형 관계에 있으며, 부부+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일수록 보험 가입률과 납입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납입보험료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구의 소득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이 가구 유형 변수였음.
  - 그 외 통제변수들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는, 가구주 성별과 자영업 변수는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규모(납입보험료) 결정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높으나, 이러한 성별 간 차이는 보험료 분석에서는 사라짐.
    - 자영업자일수록 보험 가입 확률은 낮으나, 일단 가입한 가구들 가운데서는 자영업자일수록 보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 상품별로 분석한 결과 저축성보험과 연금 상품의 보험 가입 결정 요인은 보장성보험(종신보험 포함)과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음.
  - 연금 상품을 보면 1인 가구의 연금 가입 확률과 납입액이 다른 가구에 비해 더 높은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에서는 납입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부 및 부부+자녀 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부부+자녀와 3세대 이상 가구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부부+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연금 및 저축성 상품의 수요가 낮은 이유는 주택 구매 및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의 부담으로 인해 저축 여력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임.

## V.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친 영향

-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 분석 결과, 2001년과 2012년 사이 인구 구조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가구의 연평균 납입보험료를 각각 13만 4천 원과 12만 4천 원 만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됨.
  - 해당 기간 동안 가구 연평균 납입보험료는 114만 6천 원 증가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설명 변수들 값이 변화해서 발생한 납입보험료의 변화 분(구성효과, composition effect)은 51만 4천 원이었음.
  - 해당 기간 동안 설명 변수의 계수 값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납입보험료의 변화 분(구조효과, structural effect)은 63만 2천 원이었음.
  -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총 납입보험료 변화의 약 18%를 설명하며, 구성효과(합계 변화량)의 약 33%를 설명하고 있음.
-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2001년의 인구 및 가구구조가 2012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한 2012년 가상의 보험료에 비해 2012년 실제 납입보험료는 45만 원 적은 것으로 추정됨.
  - 2001년과 2012년의 가구 평균 납입보험료는 각각 136만 원과 250만 원이었고, 2012년의 가상의 보험료는 301만 원으로 계산되었음.
  - 이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해 납입보험료가 45만 원 만큼 감소했음을 의미함.

〈요약 그림 2〉 반사실적 분석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 VI. 요약 및 시사점

■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보험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얻었음.

- 첫째, 정량분석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는 납입보험료를 약 30%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이 상당함을 확인하였음.
  - 보험산업은 이러한 보험 수요 측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인구 및 가구 변화의 영향은 보험 종류별로 다른데, 건강 및 연금 상품은 고령화와 1인화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사망보장 수요는 핵심 가입층의 비중 감소와 보험 가입 여력의 약화로 감소할 것임.
- 셋째, 1인 가구와 고령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의 보험 가입 여력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보험 소비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이들의 위험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의 공급이 필요함.
  - 주요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보험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보험 소비자가 크게 두 계층으로 양극화되어가고 있어 각 계층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소비 계층이 상위소득가구, 특히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령층 가구와 보험 가입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젊은 세대 및 중산층으로 분화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구 대상으로는 자산관리, 유산상속 등의 니즈를 포함하는 개인별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가의 보험 상품(정기보험 및 제3보험)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저가 채널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I.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대수명 연장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와 함께 전통적 가족형성 가치관의 약화로 인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험 소비자의 주·객관적 위험보장 수요를 변화시켜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는 소득이나 소비를 결정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본 단위로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대비 및 보장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이다. 따라서 가구는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이며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유형 그리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위험보장 수요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가구 단위 분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산업은 특성상 자발적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장기적 전망은 주로 공급측 요인과 거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고, 보험 수요에 대한 분석은 극히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가 어떻게 가구의 위험보장 수요에 영향을 주어 보험 수요를 변화시키는지 가구 단위의 미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보험 수요 변화에 대한 정량분석은 향후 장기적인 보험 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금융에 미치는 영향(윤성훈 외 2011), 소비구조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진면 외 2013; 박문수 외 2013), 금융자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상호 외 2011) 등이 있다. 한편,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황수경 2011), 가족정책(김영철 외 2011; 김유경 외 2013), 주택문제(이지순 외 2002; 김현진 외 2000),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김문길 외 2012) 등이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나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권순일(2011)은 보험 수요의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석영 외(2014)는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개발원 연령별 계약 건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보험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미시적 분석은 부재한 실정이다.

## 3. 연구내용 및 방법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 상품별로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른 가입률을 비교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4차부터 15차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보험 가입(가입률과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첫째와 둘째 내용은 주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가구주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의 납입보험료 변화에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요인분해법(Decom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변수별 분해법(Detailed Decomposition method)을 이용해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2001년과 2012년 사이의 가구 납입 보험료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다른 변수들(보험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법을 이용하여 2001년의 인구와 가구구조가 2012년에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 납입보험료와 2012년 실제 가구의 납입보험료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 Ⅱ.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

이 장에서는 가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들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구구조가 변화한 원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험가입의 결정단위로서의 가구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 가. 가구구조 변화의 원인

가구구조 변화의 원인은 크게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생애과정의 변화, 그리고 가족형성에 관련된 혼인과 출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라 할 수 있다.

#####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

가족 생애주기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족의 형성(formation), 확장(extension), 수축(contraction), 소멸(dissolution)의 네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형성기에 결혼을 하고, 확장기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 수축기는 자녀의 혼인 및 독립으로 가족의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이며, 소멸기는 배우자와 본인의 사망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수축과 소멸기 사이에 자녀 출가 후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시기인 “빈둥지기”가 존재한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만들고, 이에 교육기간이 늘어나 성인기로의 진입이 지연되게 된다. 이는 초혼연령을 상승시켜 전체적으로 생애주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계청의 『201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2세, 여성 29.6세로 나타났다. 이는 30년 전에 비해 남성은 5.8세, 여성은 6.6세 상승한 것이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남성은 2.1세 여성은 2.3세 상승한 것으로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폭이 남성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데, 2013년 30.7세로 1993년의 26.2세, 2003년의 28.6세에 비해 각각 4.6세와 2.1세 증가하였다.<sup>1)</sup>

〈표 II-1〉 가족 생애주기

구분	형성	확장	수축	소멸
생애주기 사건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자녀 독립	배우자 사망
가구주 연령	25~34세	35~44세	45~64세	65세 이상

주: 가족 생애주기 구분에 '초혼연령' 및 '첫 출산연령'이 고려됨.  
자료: 통계청(2013).

또한 초혼연령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자녀 출가 이후 부부가 함께 사는 빈동지기가 연장되고 있다. 공세권 외(1987)가 조사한 한국 가족 생활주기 변화에 따르면, 1935~1944년과 1945~1954년에 결혼한 코호트의 경우 빈동지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막내자녀가 결혼하기 각각 5.8년과 2.6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 자녀 수의 감소로 1955~1964년 코호트부터 빈동지기가 가족 주기의 단계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1975~1985년 결혼한 코호트의 경우 막내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부터 남편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인 빈동지 기간이 15년에 이르게 되었다.<sup>2)</sup>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2)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해체와 생애과정의 다양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기대수명 연장과 더불어 고학력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가치관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가족 형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초혼연령과 미혼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한편, 이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의 약화는 여성의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이어져 이혼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혼인, 출산,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생애과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대신 평생 미혼으로 사는 독신가구나 자녀 없는 부부 가구를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구,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갈수록 약해지고, 부모 역시 노후에 자식과 따로 살기를 원하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공적 연금의 도입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한 사회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다시 가족의 부양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 부부 가구와 노인 단독 가구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나. 가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가족의식의 약화 및 가족의 해체 결과, 전통적인 가구(부부와 자녀 혹은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가구 유형이 1인화, 여성화, 노령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05).

## 1) 가구와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먼저 총 가구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1,735만 9천 가구에서 2035년에는 2,226만 1천 가구로 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 수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에 비해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2010년 총 가구 수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반면 인구 증가율은 0.46%로 가구 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3.9배에 이른다. 인구는 2030년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구 수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분화와 해체로 인해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sup>3)</sup>

평균 가구원 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데, 1990년에 3.77명이던 것이 2000년에 3.12명, 2010년에 2.71명으로 감소했고, 2035년에는 2.1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00년까지 4인 가구 비중이 31.1%로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 비중이 24.2%로 가장 높았다. 2012년에 1인 가구의 비중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향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2〉 가구원 수 비중의 변화(1990~2035년)

(단위: %)

구분	1990	2000	2010	2012	2035
1인	9.0	15.5	23.9	25.3	34.3
2인	13.8	19.1	24.2	25.2	34.0
3인	19.1	20.9	21.3	21.3	19.4
4인	29.5	31.1	22.5	20.9	9.8
5인	18.9	10.1	6.2	5.6	1.9
6인	5.9	2.4	1.4	1.2	0.4
7인 이상	3.8	0.9	0.5	0.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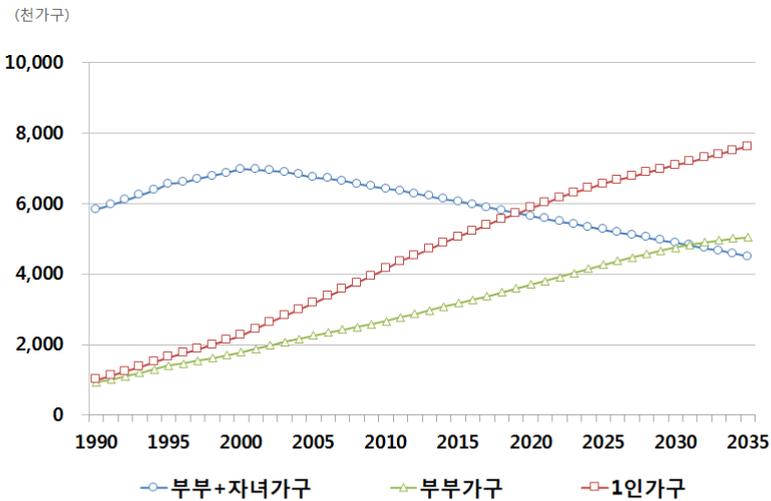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7, 2012), 장래가구추계.

3) 통계청(2012).

## 2) 가구구조 변화의 특징: 1인화, 여성화, 노령화

가구 유형의 변화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증가, 그리고 전통적 가구 형태인 부부+자녀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구 유형의 변화는 인구 고령화, 가족 규모의 축소와 세대 구성의 단순화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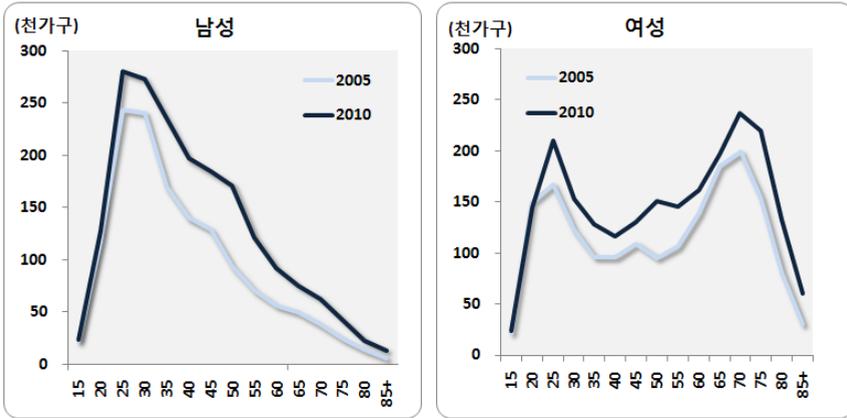
〈그림 II-1〉 가구 유형의 변화(1990~2035년)



자료: 통계청(2007, 2012), 장래가구추계.

가구 유형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인 가구의 증가인데, 1인 가구는 1990년에 비해 2010년에 약 4배 정도 증가했고, 2035년에 이르면 8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1인 가구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은 1인 가구 비중이 혼인 직전인 28세에 가장 높았다(17.3%)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1인 가구 비중은 26세(13%)에 1차 정점에 달한 후 79세에 2차 정점(36.9%)을 갖는 쌍봉구조를 보이고 있다. 청년기에는 남성 1인 가구 수가 여성 1인 가구 수보다 높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비교적 일찍 결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년기에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평균수명이 길어서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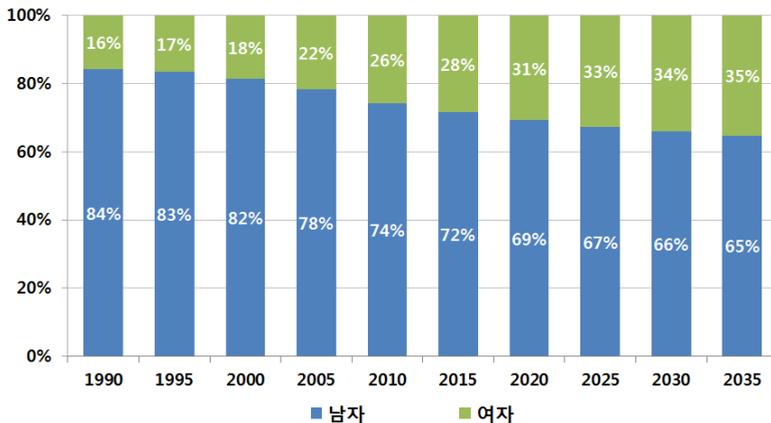
〈그림 II-2〉 성별·연령별 1인 가구 추이(2005년, 2010년)



자료: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가구구조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가구주의 여성화라 할 수 있다.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1990년 15.7%였으나 2010년에는 25.7%로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35.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에 비해 약 7세 정도 높아 여성 노인이 혼자 사는 단독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가구의 1인화와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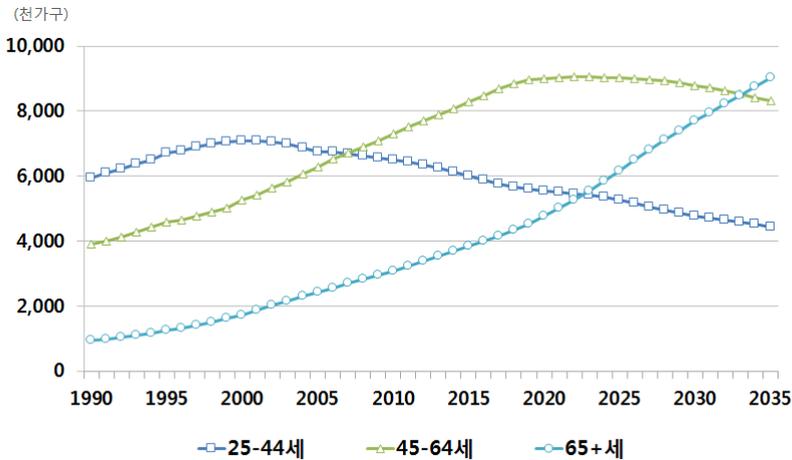
〈그림 II-3〉 가구주의 여성화(1990~2035년)



자료: 통계청(2007, 2012), 장래가구추계.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를 연장시켜 전체 가구 가운데 노인 부부와 노인 단독 가구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림 II-4>에서 보듯이 65세 이상 노령 가구의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 반면, 가구주 연령이 25~44세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0년 현재 부부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인데, 2035년에는 70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II-4> 가구주의 노령화(1990~2035년)



자료: 통계청(2007, 2012), 장래가구추계.

한편,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약화에 따른 소자녀화, 혼인을 저하, 이혼율 증가 역시 1인 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 가구의 증가, 한 부모 가구(특히, 여성 한 부모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주요국의 가구구조와 비교

먼저 주요 선진국의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 부모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3〉 주요국의 가구 구성 비교

(단위: %)

구분	부부 가구 <sup>2)</sup>	1인 가구	모+자녀	부+자녀
한국	53.5	23.9	7.2	2.0
독일	55.4	35.8	5.0	0.9
스페인	62.9	20.3	8.0	1.9
프랑스	58.3	31.0	6.8	1.2
이탈리아	62.3	24.9	7.3	1.6
네덜란드	59.9	33.6	4.9	0.9
영국	53.5	30.2	8.5	1.3
미국	51.7	27.3	7.1	2.1
덴마크	50.9	36.8	4.3	0.8
스웨덴	63.9	-	-	-
핀란드	49.8	37.3	6.5	1.1

주: 1) 2011년 기준; 한국, 미국, 핀란드는 2010년, 프랑스는 2009년, 스웨덴은 2005년 기준임.

2) 부부만 있는 가구와 부부+자녀가구 모두 포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한편, 선진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먼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주요국의 가구구조 변화 추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지만, 2035년에는 선진국들의 현재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60세 이상 가구 비중 역시 우리나라가 2005년까지는 낮은 편이었지만, 2035년이 되면 52%로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4〉 주요국의 가구구조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구분	(a) 1인 가구 비중 변화				(b) 60세 이상 가구 비중 변화			
	1994	1999	2005	2035	1994	1999	2005	2035
한국	11.9	15.0	20.0	34.3	15.6	18.7	22.3	52.0
독일	31.7	35.4	37.0	—	32.7	33.4	35.0	—
스페인	10.1	10.1	13.6	—	38.0	37.0	39.8	—
프랑스	26.8	28.9	30.3	—	33.6	30.8	33.2	—
이탈리아	20.2	22.0	27.2	—	30.0	44.1	42.5	—
네덜란드	28.2	33.7	—	—	26.4	26.5	26.6	—
영국	26.5	31.4	28.7	—	31.1	29.8	33.5	—
미국	24.3	26.0	27.0	—	11.9	11.0	10.0	—
덴마크	32.8	37.3	39.7	—	28.2	27.7	29.7	—
스웨덴	29.6	38.2	37.4	—	24.6	22.3	29.5	—
핀란드	34.3	38.3	40.1	—	29.0	28.9	31.8	—

주: 미국은 65세 이상임.

자료: 한국은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미국은 United States Census, 유럽은 Eurostat.

## 2.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 가. 가구와 보험

가구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동일 거처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단위로 정의된다. 소득, 소비, 저축과 같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본 단위이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또한 가구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위험과 위험에 대한 준비 및 보장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결정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다.

〈그림 II-5〉 의사결정 본 단위로서의 가구



가구는 주로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구주(주로 가장)의 연령에 따라 가족의 생애주기가 결정되고 각 시기마다 과제가 주어진다. 결혼, 출산, 자녀양육, 주택구입, 자녀 혼인, 노후자금 마련 등의 시기별 과제에 따라 필요한 위험보장 수요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과 가구 유형 구성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의 연구 중 가구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가구 유형 대신에 가구원 수를 이용한 경우가 있으나, 가구원 수는 가구 유형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에는 부부 가구뿐만 아니라 한 부모 가구, 형제자매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며, 이들은 소득이나 소비지출패턴, 위험보장 측면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른 보험 수요를 가질 것이다.

또한,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고령화의 영향만을 분석할 경우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30~40대의 절대적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감소 역시 보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보험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객관적 위험보장 수요와 주관적 위험인식에 따른 보장 수요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잠재적 보험 수요가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소비자의 보험 구매력 그리고 해당 상품의 공급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절에서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칠 영향을 주·객관적 보험 수요의 변화와 보험 가입 여력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객관적 보험 수요 변화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 유형의 변화는 가구의 객관적 보험 수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가구의 객관적 위험보장 수요는 과거 사망보장에서 생존보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는 크게 건강 위험과 노후소득 위험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은퇴 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의료비 보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는 생애주기과정에서 형성기와 확장기의 가구 비중을 감소시킨다. 전통적인 가구(부부+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와 1인 및 부부 가구의 증가로 대변되는 가구구조의 변화는 부양가족을 갖는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소득 상실 위험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보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로 연금 및 저축성보험, 건강보험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반면, 사망보장을 주로 하는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주관적 보험 수요 변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자식의 부모 부양책임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상속 동기 역시 감소시키고 있다.

상속 동기의 감소는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 소비 재원으로 주택연금이나 토지연금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최근 윤석명 외(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106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구주의 40%가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응답했다. “평생 벌어 다 쓰고 떠난다.”라는 노후 설계 모토는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현재 가입률은 낮지만 향후 역모기지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수반한다. 노년기가 생애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고 빈둥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골드미스”라 불리는 독신 여성 가구주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일부 노년층은 주요 소비 구매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여성과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보험 상품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주관적 보험 수요는 개인의 위험기피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대소득의 불확실성과 위험기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 최현자(2007)에 따르면 위험회피자들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험기피도가 높은 고령층의 증가는 주관적 보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3) 보험가입 여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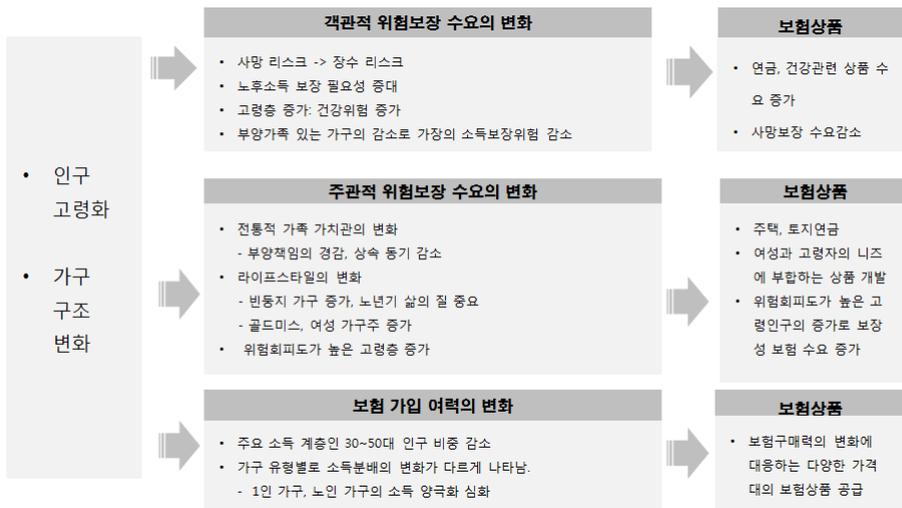
주·객관적인 위험보장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잠재

4)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정리는 유승동·김주영(2014)을 참고하기 바람.

적 보험 수요가 보험가입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소득 수준별로 잠재적인 보험 수요와 구매력을 고려해 볼 때, 부유층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위험보장 수요는 크지 않고, 빈곤층은 위험보장 수요는 크지만 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보험의 주요 가입층은 위험보장 수요와 구매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중산층이라 할 수 있으며, 중산층의 감소는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주요 소득 계층인 30~50대의 인구 비중을 감소시켜 보험 구매력 측면에서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sup>5)</sup> 이는 생애기간 동안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이러한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중산층을 감소시켜 보험 구매력 측면에서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II-6> 보험 수요 변화 요인



5) 성명재·박기백(2010).

6) 보건복지부(2011).

---

## Ⅲ.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및 변화 추이

---

이 장에서는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보험 상품별로 주요 가입층을 조사하고,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의 주요 가입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 1.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상품별 주요 가입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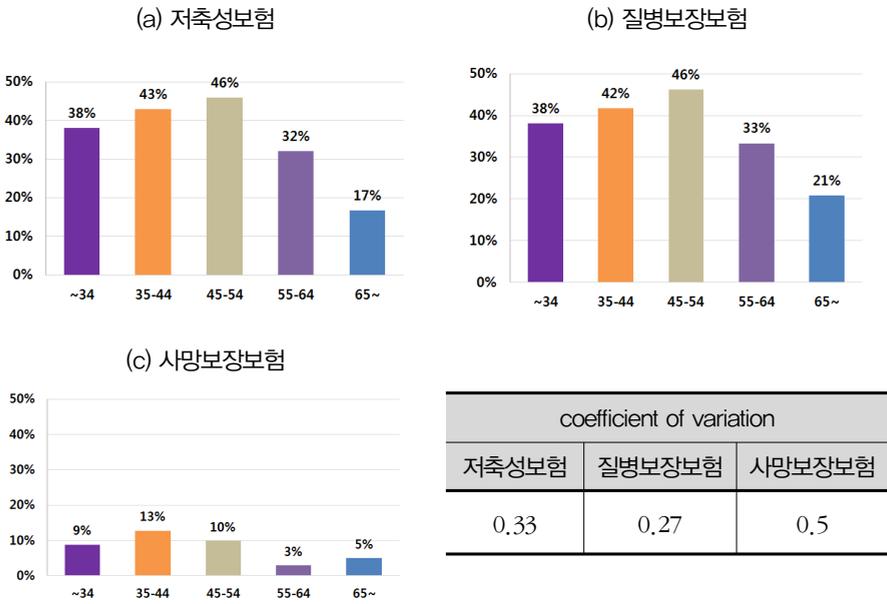
보험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 상품별로 가구의 보험가입 여부와 계약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기존의 가구주 연령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부가조사로 가구 유형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연령별, 가구 유형별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보험 상품을 크게 저축성보험,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으로 분류하였다.

#### 가. 연령별

연령별로 생명보험 상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핵심 보험 가입층은 35~54세로 모든 상품에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인데, 그나마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가장 높아 고령층의 경우 건강위험보장 수요가 가장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성보험과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의 연령별 분포는 비슷한 수준이며, 사망보장보험의 가입률은 위의 두 상품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연령대별 가입률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각 상품별로 연령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sup>7)</sup>를 계산하였다. 사망보장보험의 변동계수가 0.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저축성보험으로 0.33이었으며, 질병보장보험은 가장 작은 0.27로 계산되었다. 이는 질병보장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고른 가입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1〉 연령별 보험 가입률(2014년)



주: 저축성보험은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내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을 합한 값임.  
 자료: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나. 가구 유형별

가구 유형별로 생명보험 상품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통적 가구 유형에 속하는 부부+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모든 보험 상품에 가입률이 높은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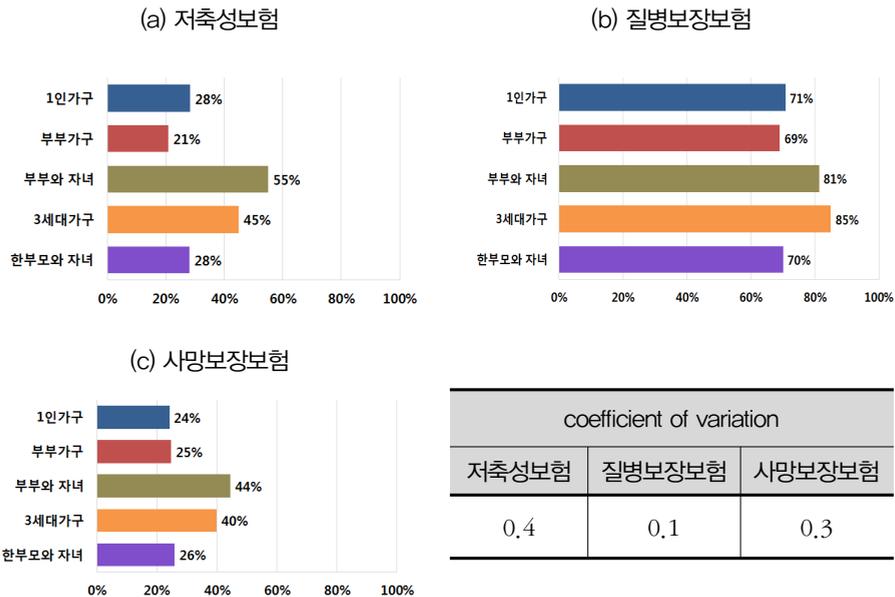
7)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자료의 상대적 분포도를 비교하고자 할 때 쓰임. 변동계수 값이 클수록 상대적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저축성보험(연금 포함)에 대한 수요가 사망보장보험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이 같은 특성은 이후 노동패널을 이용한 보험료 결정 요인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연령별 가입률과 다르게 가구 유형별 분석에서는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모든 가구 유형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70~80%대), 저축성보험과 사망보장보험이 비슷한 가입률(20~50%대) 분포를 보였다.

각 상품별로 가구 유형별 보험 가입률의 변동계수를 계산한 결과, 저축성보험의 변동계수가 0.4로 가장 높고, 질병보장보험의 변동계수가 0.1로 가장 낮게 계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구 유형들이 질병보장보험에 비교적 고르게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 가구 유형별 보험 가입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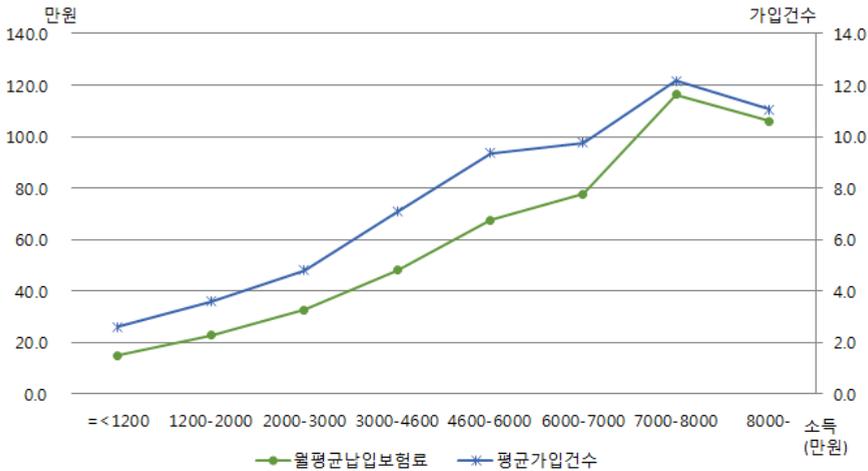


주: 저축성보험은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내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을 합한 값임.  
자료: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다. 소득 수준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연간 소득 수준, 계약 건수, 그리고 월 보험료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수준별 월 납입보험료와 보험계약 가입 건수를 조사하였다. <그림 III-3>을 보면, 납입보험료와 가입 건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월 평균 납입보험료와 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소득 수준이 8000만 원 이상에서 다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즉,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7000~8000만 원 소득 구간에 비해 오히려 납입보험료와 계약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보험가입의 소득 탄력성은 연 소득 3000~8000만 원 사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3> 소득 수준별 월 납입보험료와 계약 건수



주: 계약 건수에는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이 포함됨.  
 자료: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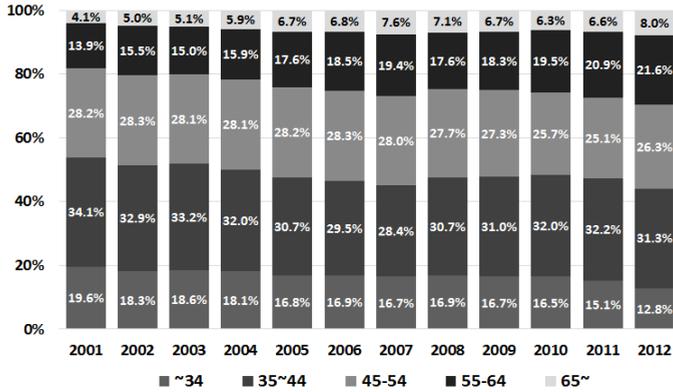
## 2. 가구의 보험가입 변화 추이

이 절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 연령과 가구 유형별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가구의 특성별로 납입보험료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주요 가입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의 보험 가입 여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 유형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와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구의 보험 가입여부와 납입보험료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동패널에서는 가구 유형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가족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 유형 변수를 생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 나와 있다. 분석 기간은 민영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노동패널 4차 조사(2001년)부터 최근에 발표된 15차 조사(2012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가. 보험 가입 가구의 연령별, 유형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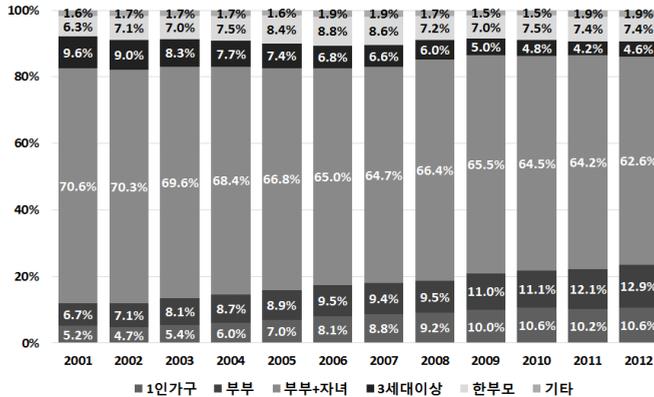
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 중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앞장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연령대별로는 35~54세의 가입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증가한 반면, 34세 이하에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55~64세가 전체 보험 가입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13.9%였던 것이 2012년에 21.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65세 이상도 4.1%에서 8.0%로 증가하였다. 34세 이하 가구는 해당 기간 동안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19.6%에서 12.8%로 6.8%p 줄었고, 35~44세 가구는 34.1%에서 31.3%로 감소했다.

〈그림 Ⅲ-4〉 보험가입 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2001~2012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그림 Ⅲ-5〉 보험가입 가구의 유형별 분포 변화(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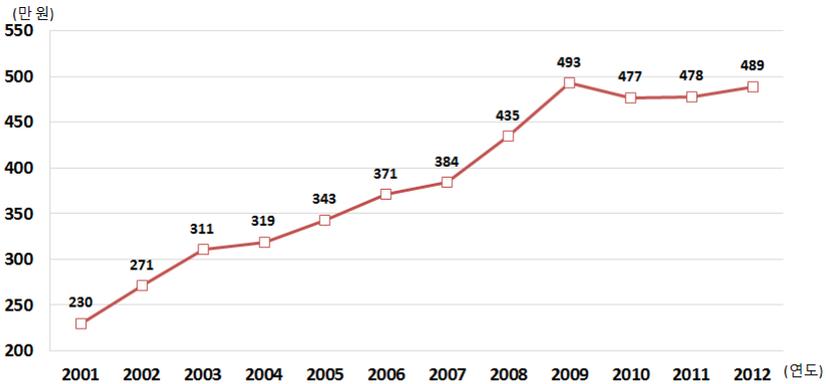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1인 가구, 부부 가구,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부부+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은 해당 기간 동안 71%에서 63%로 8%p나 감소하였다. 1인 가구의 비중은 5%에서 11%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나. 보험가입 가구의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들의 연평균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를 보면, 2001년 230만 원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최고치인 493만 원을 기록한 후 2012년 489만 원으로 정체상태에 있다.

〈그림 Ⅲ-6〉 보험가입 가구의 납입보험료 추이(2001~2012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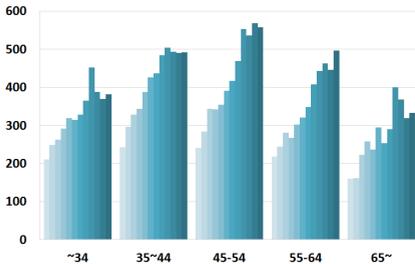
2001~2012년 동안 납입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sup>8)</sup>을 연령대별로 계산한 결과, 34세 이하는 5.5%, 35~44세는 6.6%, 45~54세는 8.0%, 55~64세는 7.8%, 65세 이상은 6.9%로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율은 45~54세에서 보험료 증가폭이 가장 컸던 반면, 34세 이하에서 증가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장년기 후반부터 중년까지(45~64세) 연령대의 납입보험료 증가율이 핵심 가입층인 34~44세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중·고령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보험료 증가율은 중·고령층의 경제력 개선과 더불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과거에 비해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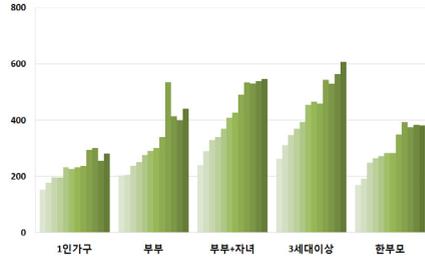
8) 연간누적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계산한 값임.

가구 유형별로 연평균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를 보면, 1인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이 5.8%로 가장 낮고, 전통적 가구 유형인 부부+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보험료 증가율이 각각 7.8%와 7.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7〉 연령별 가구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그림 Ⅲ-8〉 유형별 가구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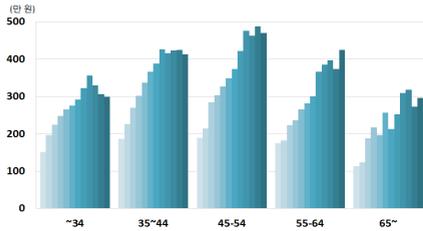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의 가장 왼쪽이 2001년 값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노동패널에서는 보험을 크게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총 보험료의 80% 정도가 보장성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비중이 작다. 이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엄격한 의미의 보장성과 저축성보험의 구분과 소비자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이 여타 금융 상품과 다르게 위험보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실제로는 저축성이더라도 보장성으로 대답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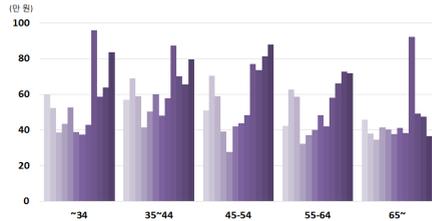
보장성보험료와 저축성보험료의 변화 추이는 〈그림 Ⅲ-9〉~〈그림 Ⅲ-12〉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장성보험료의 변화 추이는 총 보험료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연령별로는 45세 이상 가구에서 보험료 증가율이 청·장년기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전통적 가구가 1인 가구나 부부 가구에 비해 높은 보험료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저축성보험료의 경우는 대체로 2000년대 초반에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보험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저축성보험료의 경우는 연령이나 유형에 따라 변화 추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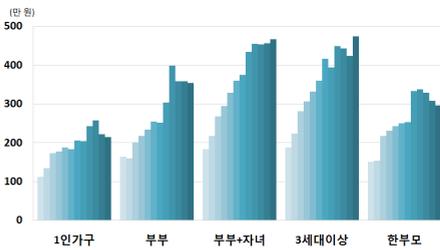
〈그림 Ⅲ-9〉 연령별 보장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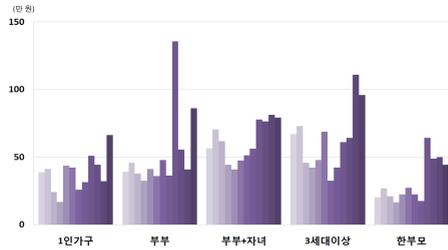
〈그림 Ⅲ-10〉 연령별 저축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그림 Ⅲ-11〉 유형별 보장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그림 Ⅲ-12〉 유형별 저축성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주: 막대그래프의 가장 왼쪽이 2001년 값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 3. 보험가입 여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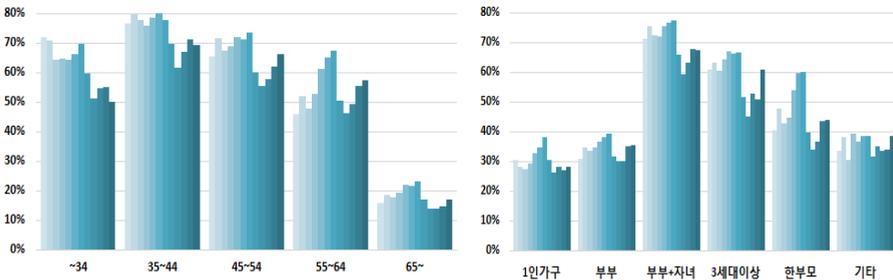
주·객관적 위험보장 수요는 보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는 보험가입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핵심 보험 가입층의 비중을 감소시켜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들의 보험 구매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중되거나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가구주 연령과 가구 유형별로 보험 가입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소득 계층별 보험가입 현황 및 추이와 가구의 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여 연령 및 가구 유형별로 구매력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 가.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

2001년에서 2012년 사이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가구주 연령별, 가구 유형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는 각각 <그림 III-13>과 <그림 III-14>에 나와 있다.<sup>9)</sup> 이 보험 가입률에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빠져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림 III-13> 연령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2001~2012년)

<그림 III-14> 유형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2001~2012년)



주: 막대그래프의 가장 왼쪽이 2001년 값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먼저 가구주 연령별로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34세 이하에서 대폭 감소하였고, 35~54세의 경우 소폭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인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자녀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보험 가입률이 감소한 반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그리고 한 부모 가구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인구 구성이나 가구구조의 변화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각 집단별 보험가입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험 가입률이 핵심 가입층인 35~54세와 전통적 가구형태(부부+자녀, 3세대 이상)에서 감소한 반면, 고령층과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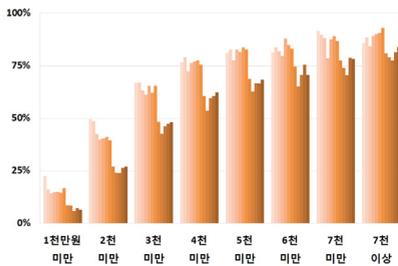
9)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률은 2008-2009년 사이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2008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그리고 2009년의 경우는 노동패널에서 조사가구를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들이 진입한 결과로 보임.

부부 가구에서 증가한 것은 가구의 보험 가입 여력이 각 유형별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고령층과 1인, 부부 가구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여력에서도 주요한 보험 소비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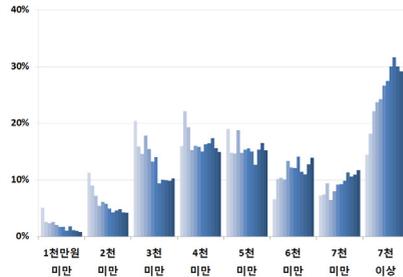
#### 나.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변화 추이

노동패널에서는 가구 소득을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천만 원 단위로 보험 가입률을 계산하였다 (<그림 Ⅲ-15> 참조). 3천만 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서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5> 소득구간별 보험 가입률 변화(2001~2012년)



<그림 Ⅲ-16> 소득구간별 납입보험료 비중 변화(2001~2012년)



주: 막대그래프의 가장 왼쪽이 2001년 값임. 소득은 실질소득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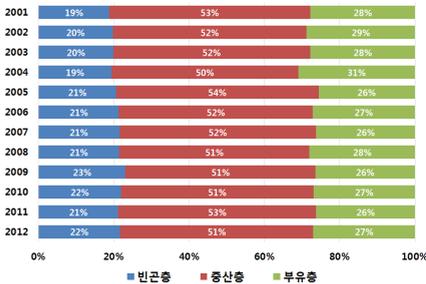
또한 전체 납입보험료 중 각 소득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보험 가입률과 동일한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 낮은 소득 구간에 속하는 가구들의 납입보험료 하락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Ⅲ-16> 참조).

다음으로 OECD 기준에 따라 세후 실질소득을 1인 균등화 가치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 계층을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분류하였다. 중산층의 소득 범위는 1인 균등화 가치분 소득 기준으로 961만 원부터 2,884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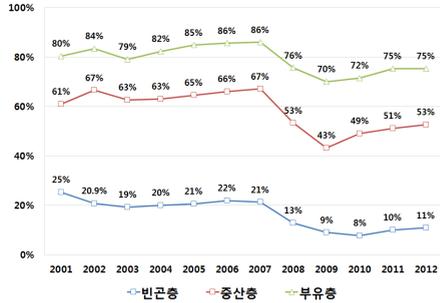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그림 III-17〉), 2001년에서 2012년 사이 큰 변화는 없었으며, 빈곤층 비중이 2009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이후 정체 상태이고 중산층은 소폭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그림 III-18〉), 빈곤층의 경우 2001년 25% 였던 것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11%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중산층과 부유층의 보험 가입률은 200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9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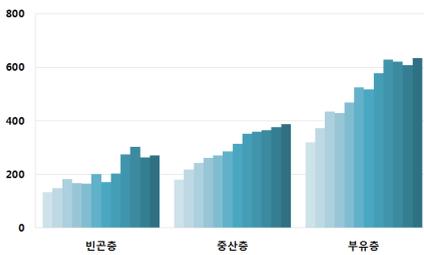
〈그림 III-17〉 가구의 소득분포 변화 추이(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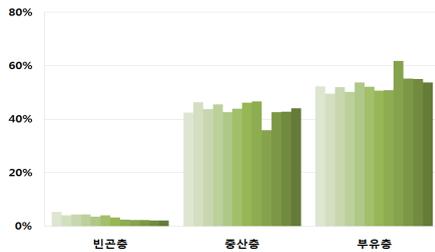
〈그림 III-18〉 소득계층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2001~2012년)



〈그림 III-19〉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가구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2001~2012년)



〈그림 III-20〉 소득계층별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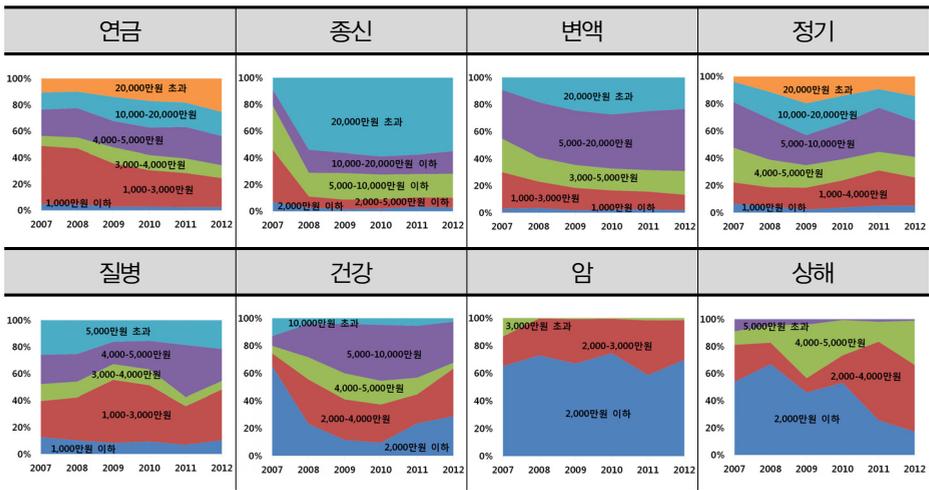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의 가장 왼쪽이 2001년 값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소득계층별로 보험가입 가구의 연평균 납입보험료 추이를 보면 부유층의 보험료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 결과 전체 보험료에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빈곤층과 중산층은 감소한 반면, 부유층은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보험료에서 부유층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의 보험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상품의 가입금액별 판매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생명보험 통계자료집을 통해 가입금액별 신계약 건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면, 보험가입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가입금액별 신계약 건수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그림 III-21〉), 연금, 종신, 변액과 같이 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들에서 연도별로 일정한 추이가 관찰되었다. 낮은 가입금액 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가 상품의 신계약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높은 가입금액의 신계약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보험료)이 높은 보험 상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부유층의 보험 구매가 빈곤층과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기보험이나 건강관련 상품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III-21〉 보험가입 금액별 신계약 건수의 비중(2007~2012년)



자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통계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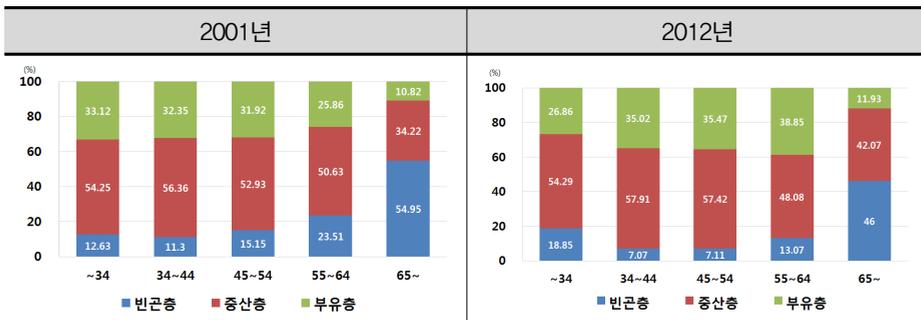
다. 가구의 소득분포 변화 추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소득분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보험 구매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1년과 2012년에 해당 가구 유형에서 각 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분포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구주 연령별로 2001년과 2012년의 소득계층 분포를 비교하였다(〈그림 Ⅲ-22〉참조). 모든 연령대의 빈곤층 비중이 2001년에 비교해서 2012년에 감소한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34세 미만인 가구에서만 빈곤층의 비중이 12.63%에서 18.89%로 증가하였고, 중산층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한편, 55~64세는 빈곤층 비중 감소와 부유층 비중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는 베이비부머의 일부와 예비 노인 세대가 포함된다.

인구 고령화로 청년기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들은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소득분포에서 하향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소득 계층이 상승하고 있어 중·고령층의 보험 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2〉 가구주 연령별 소득계층의 변화(2001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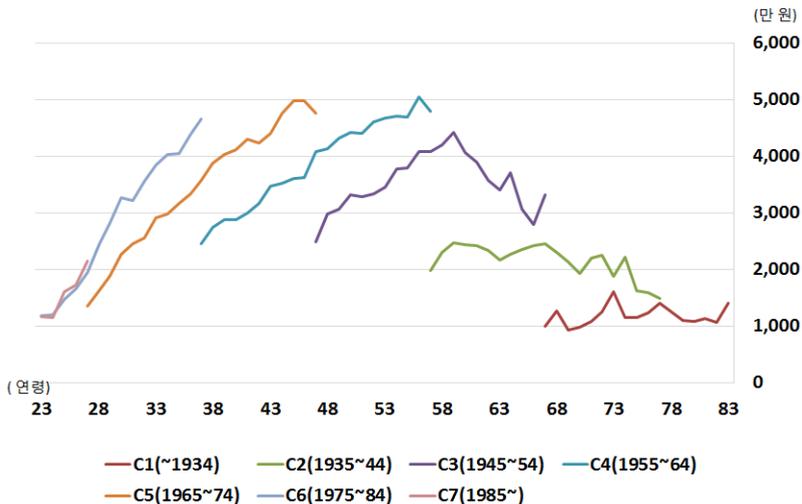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이러한 연령별 소득계층에 세대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코호트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955~1963년 출생인 베이비붐 세대를 기준으로 이들을

전·후로 해서 10년 단위로 코호트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를 총 7개의 출생 코호트로 나눌 수 있었다: C1(~1934), C2(1935~44), C3(1945~54), C4(1955~64), C5(1965~74), C6(1975~84), C7(1985~). 이들 중 2012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C4에 해당되며, 예비노인 세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인 C3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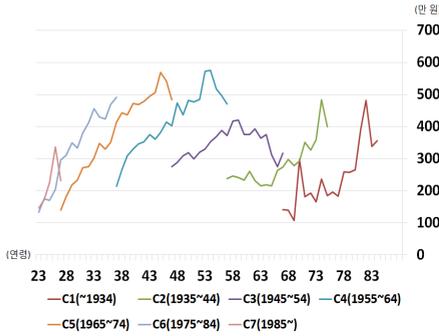
먼저 2001~2012년 동안 코호트별 연평균 소득 변화를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림 Ⅲ-23>의 맨 오른쪽 하단이 가장 나이가 많은 코호트로(C1, ~1934) 소득이 매우 낮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동일 연령 기준으로 소득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직전 세대와 비교해서 소득격차가 가장 큰 세대는 C3(1945~54)로 2012년 기준으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예비노인 세대이다. 그 다음이 베이비부머이고, 이후 세대로 갈수록 소득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물론 조사 기간이 10여년에 불과해 현재 청·장년 세대가 이후 노년기가 되었을 때의 소득 변화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 나타난 추세로만 보자면, 고령층의 소득 증가는 예비노인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두드러지고 이후 세대에서 다시 이 같은 소득의 커다란 갭이 발생할 지는 미지수다.

<그림 Ⅲ-23> 코호트별·연령별 소득 추이(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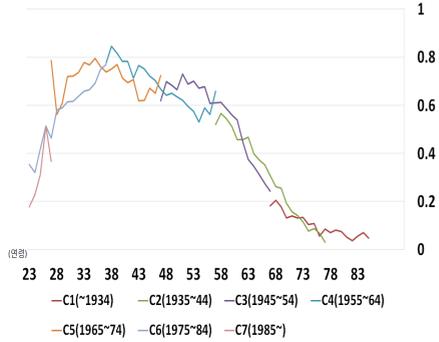


주: 23세 미만과 84세 이상은 샘플 수가 작아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그림 III-24〉 코호트별 · 연령별 연간 보험료 추이(2001~2012년)



〈그림 III-25〉 코호트별 · 연령별 보험 가입률 추이(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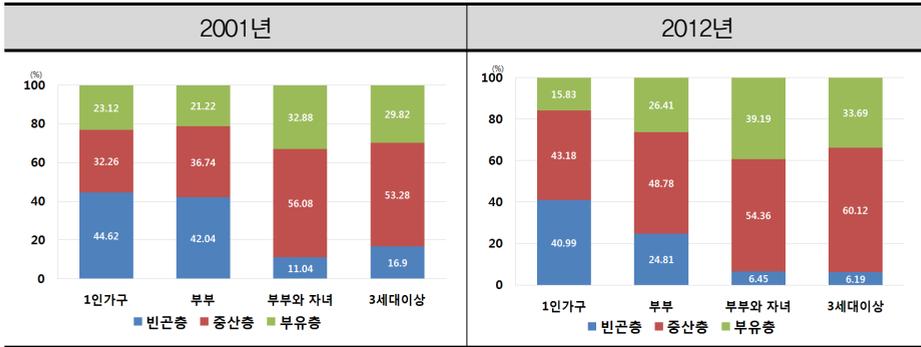


주: 23세 미만과 84세 이상은 샘플 수가 작아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코호트별 납입보험료 변화 추이는 소득 변화 추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III-24〉). 소득과 다른 점은 현 노인 세대(C1과 C2)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이 정체 혹은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마도 현재 보험에 가입해 있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호트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연령에 따른 보험 가입률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I-25〉 참조). 이는 보험 가입률에서는 특별히 세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 유형별로 소득 계층의 변화를 보면, 1인 가구는 빈곤층과 부유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빈곤층의 감소폭이 크고, 중산층과 부유층이 증가하였다. 반면, 부부+자녀가구에서 유일하게 중산층이 감소하였다. 정리해 보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중산층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할 때, 주요 보험 소비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6〉 가구 유형별 소득계층의 변화(2001년, 2012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

## IV. 가구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 분석

---

앞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 가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로 기술통계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가구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을 회귀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 1. 선행연구

보험 수요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거시적 분석과 가구 단위의 미시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험 수요의 거시적 요인을 연구한 문헌으로는 Browne and Kim(1993), Beck and Webb(2003), 그리고 Li et al.(2007)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생명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이 클수록 구매력이 높아지고, 사망 시 소득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대여명의 증가는 사망확률이 줄기 때문에 음의 효과가 있지만(Li et al. 2007), 동시에 기대여명의 증가는 생명보험 보험료를 낮춰 수요창출 측면이 있으므로 양의 효과(Browne and Kim 1993; Beck and Webb 2003)가 나타나기도 하여 상반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양의 효과를 가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이 크고, 자식들의 교육수준 역시 높아 자식의 의존기간이 높기 때문에 양의 효과가 있다. 사회연금은 보험과의 대체효과가 있으며 또한 세금의 증가로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 산업의 성숙도는 효율적인 지급시스템과 효율적인 투자로 보험자에 대한 신뢰를 키워 주는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해외 기업 점유도에서 외국기업의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국내 기업 사이에 심한 경쟁을 의미하며 시장이 포화상태일 수 있어서 보험소비가 큰 편일 수 있는 반면, 외국기업 비율이 아주 높아도 보험 상품의 질 개선을 통한 보험 소비 규모가 큰 편일 수 있어서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Beck and Webb 2003). 기대 물가 상승률은 보험 수요와 음의 관계를 갖지만, 실질 이자율의 경우는 단정적인 결론을 얻기 힘들다. 높은 이자율은 보험료를 낮춰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보험금을 높여 가입하는 보험 계약의 숫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07).

한편, 미시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거시 분석보다는 많지 않은 편인데, 주로 미국에서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와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 자료를 이용해 가구의 생명보험 수요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sup>10)</sup> Bernheim(1992)은 RHS(Retirement and Health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명보험과 연금이 유산상속 유인에 의해 영향 받음을 보여줬다. Showers and Shotick(1994)은 CES 데이터를 이용해 가구의 총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보험 수요를 분석하였고, Frees and Sun(2010)은 SCF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명보험 수요를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보장 금액으로 나누어 2단계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Lin and Grace(2007)는 가계의 재무 불안정성(financial vulnera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배우자 사망 전의 소비 대비 배우자 사망 후의 소비 비율로 가구의 소득 위험을 측정하였다. 정기 및 종신보험의 가입금액(face value)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 변수로 소득위험, 나이, 퇴직 후 소득, 다른 자산, 기대 유산, 부채, 소득, 교육 수준, 유산상속 의지 등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의 부족으로 미시 분석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들이다. Lee et al.(2010)은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한 2005년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보장성보험료와 저축성보험료에 연령, 교육, 소득, 고용, 교육과 소득의 교차항, 거주 지역(도시 혹은 농촌) 등의 독립 변수가 미친

10) 생명보험 수요 결정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Zietz(2003)에 잘 정리되어 있음.

영향을 분석하였다. 권순일(2011)은 2003년부터 2010년 동안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연령, 코호트, 연도 세 변수가 보험계약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은 전 연령에서 수요가 지속되며, 코호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서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생명보험산업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최석규(2011)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자료를 이용해서 연간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취업 가구원 수, 가장의 연령 등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고, 보험 미가입 시 보험료 지출이 0이 되는 절단으로 인한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토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가구원 수 대신 가구 유형을 사용하였다는 차별성이 있고, 노동패널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비해 다양한 가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 2. 실증분석

### 가. 분석 모형

보험 수요는 보험 가입 금액의 총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나라에는 가구의 보험 가입 금액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보험 수요 변수로 대신하여 사용한다. 종속변수인 납입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절단된 데이터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회귀분석에 의해 모수추정을 할 경우 최소제곱추정량이 편의를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종속변수의 일부만이 관찰되지 않고 중도절단(censoring)된 경우에 주로 토빗모형이 사용된다.<sup>11)</sup>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납입보험료는 0으로 관찰되지만 미가입 가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납부할 보험료가 모두 0으로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토빗모형은 최대우도추정을

11) 토빗모형을 이용한 보험 수요 분석으로는 최석규(2011), Lin and Grace(2007) 등이 있음.

통해 보험 가입가구와 미가입 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간주하여 설명 변수들의 계수와 잔차를 추정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까지 포함한 보험 수요 결정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토빗모형은 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를 분리하여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를 갖는다. 즉, 설명 변수가 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 결정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를 비교해 볼 때, 여성 가구주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일단 보험에 가입한 가구들을 비교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가구주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성별이라는 설명 변수가 보험가입과 납입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토빗모형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2단계 모형으로 Heckman의 선택모형이 있다. Heckman 모형은 보험에 가입한 가구와 가입하지 않은 가구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단계 납입보험료 결정 요인 분석 시 보험 가입 가구만 사용하게 되는 편향성을 보정해주기 위해 1단계에서 역밀 비율을 계산하여 2단계의 독립 변수로 사용한다. 하지만 Heckman 모형은 가입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만 납입보험료에는 관계가 없는 변수를 1단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하는 Exclusion restriction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노동패널에서는 이런 변수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 결정 요인을 분리해서 추정할 수 있는 허들모형(huddle model)을 사용했다. 이 모형에서 허들은 보험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을 의미하며, 이 선택을 넘어 보험에 가입하여야 납입보험료 수준이 결정된다. 이때 중요한 가정은 일단 구매 여부 결정을 한 후에 얼마나 구매할 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 규모를 독립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정은 주로 내구재처럼 소비는 늘 이루어지지만 구입행위는 간혹 이루어지는 소비재의 수요함수를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된다. 보험 상품 역시 한 번 구매하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소비(위험을 보장받음)한다는 의미에서 내구재와 비슷한 성격

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허들모형은 정규분포 허들모형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빗 모델을 따르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  $w$ 와 절단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를 갖는  $y^*$ 를 가정한다. 종속변수인  $y$ 는 두 변수의 곱으로 정의한다.

$$y = w \cdot y^*$$

$$P(w_i = 1|x_i) = \Phi(x_i\gamma)$$

$$y^* \sim normal(x_i\beta, \sigma_u^2)$$

이때 정규분포 허들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Cragg 1971).

$$\ln L = \sum_0 \ln(1 - \Phi(x_i\gamma)) + \sum_+ \left[ \ln\Phi(x_i\gamma) - \ln\sigma_u - \ln\Phi\left(\frac{x_i\beta}{\sigma_u}\right) + \ln\phi\left(\frac{y_i - x_i\beta}{\sigma_u}\right) \right]$$

회귀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들은 <그림 IV-1>에 정리되어 있다. 연령과 가구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 변수로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최대한 사용했다. 이 변수들은 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 둘 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허들모형의 1단계와 2단계에 동일한 설명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독립 변수 외에 연도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IV-1> 주요 설명 변수

핵심변수	가구 경제 변수	가구 특성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 연령 : 연령, 연령 제곱</li> <li>▪ 가구유형 5가지 :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 3세대 이상, 취약가구(한부모,조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li> <li>▪ 자산</li> <li>▪ 자가소유여부</li> <li>▪ 맞벌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 성별</li> <li>▪ 가구주 교육(연수)</li> <li>▪ 종사상 지위 (자영업, 임금소득자)</li> </ul>

공급측면과 거시환경의 영향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물론 보험사의 상품 공급이 가구별, 연령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그 부분은 분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나. 데이터 및 변수 설명

### 1) 분석 자료

가구의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구 특성을 포함하면서 전체 민영보험 가입여부와 납입보험료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패널 자료는 많지 않다. 의료패널의 경우 조사내용이 상세한 편이나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조사자료(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는 자산의 한 유형으로 저축성보험만을 조사하고 있어 소비자의 보험가입 상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노동패널은 저축의 일부로 유량(flow)인 연간 납입보험료와 자산의 일부로 저장(stock)인 보험자산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

그 동안 민영보험 관련 미시분석에는 주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가 사용되어 왔는데, 표본 수가 작아서(1200가구) 연령과 가구 유형별로 세분하여 분석하기 어렵고, 자산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 변수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패널의 장점은 조사기간이 길고, 샘플 수가 크며, 보험 종류별로 가입 상태(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그리고 연금을 독자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9차 조사부터는 보장성보험을 세분화시켜 새로이 종신보험 항목이 추가되었다. 민영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는 4차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노동패널 4차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된 15차까지 12년 동안의 가구자료를 이용하였다.

## 2) 가구 유형 변수 생성

노동패널에서는 가구 유형을 따로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 변수를 구축하였다.<sup>12)</sup> 가구 유형은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부+자녀 가구, 한 부모 가구, 3세대 이상,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류 방식은 1인 가구는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부부 가구는 가구원 수가 2인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자녀는 가구원 수 3인 이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3세대 가구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위·아래 3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IV-1〉 가구 구성의 변화(2001~2012년)

(단위: %)

구분	1인	부부	부부+자녀	3세대 이상	한 부모	기타
2001	10.8	11.7	58.2	11.5	6.6	1.2
2002	11.2	12.0	57.5	11.1	6.9	1.3
2003	12.1	12.9	55.7	10.4	7.7	1.2
2004	12.9	13.1	55.6	9.6	7.6	1.3
2005	13.9	13.5	54.1	9.5	7.7	1.3
2006	15.3	14.0	52.6	9.3	7.7	1.2
2007	16.3	13.8	52.3	9.0	7.4	1.1
2008	17.2	14.6	51.5	8.1	7.3	1.3
2009	18.8	15.4	49.9	7.6	7.1	1.2
2010	19.4	16.5	48.6	7.3	6.9	1.2
2011	20.3	17.1	47.8	6.8	6.8	1.2
2012	20.7	17.6	47.4	5.1	6.5	2.7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각 가구 유형의 변화는 〈표 IV-1〉과 같다. 해당 기간 동안 변화가 가장 큰 가구는 1인 가구와 부부+자녀 가구인데, 1인 가구는 약 10%p 증가한 반면, 부부+자녀 가구는 약 10%p 감소했다.

12) 노동패널은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음.

가구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가구 유형의 조건부 전이확률을 통해 가구구조 변화의 패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IV-2>는 2001~2002년 사이 그리고 2011~2012년 사이에 발생한 가구 유형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인 가구였던 가구가 2002년에도 여전히 1인 가구일 확률은 96.43%, 부부 가구로 변화할 확률은 1.9%, 부부+자녀 가구로 변화할 확률은 0.95%임을 알 수 있다. 관찰된 두 기간을 비교했을 때 전이확률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경우는 부부 가구에서 부부+자녀 가구로 변화한 경우이다. 이 가구 유형의 변화는 자녀 출산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인데,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부부 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확률은 10.9%였던 반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6.96%로 감소하였다. 이는 가구구조 변화에 저출산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1년부터 2012년 전 기간 동안 가구 유형의 조건부 전이확률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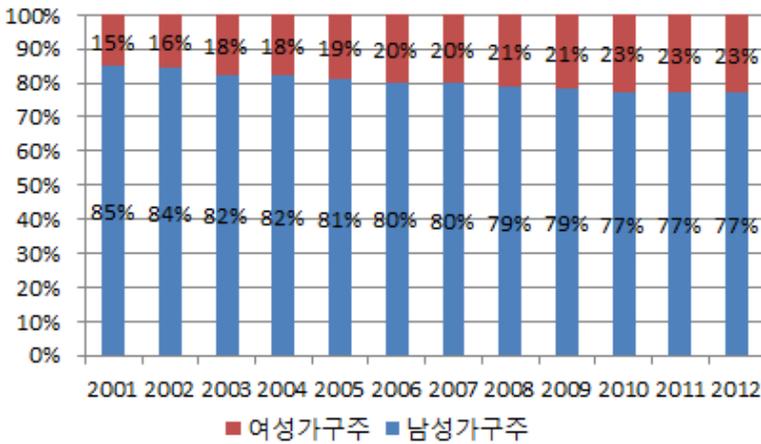
<표 IV-2> 가구 유형의 전이확률(2001~2002년, 2011~201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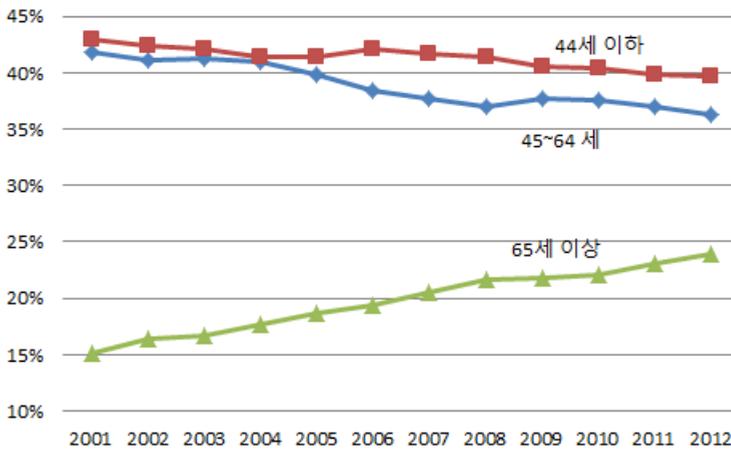
2001~2002년						
구분	1인	부부	부부+자녀	3세대	한 부모	기타
1인	96.43	1.90	0.95	0.24	0.24	0.24
부부	2.35	85.47	10.90	1.07	0.21	0.00
부부+자녀	0.04	1.32	96.92	0.92	0.79	0.00
3세대	0.66	1.32	5.30	91.61	0.66	0.44
한 부모	2.00	0.00	0.80	0.80	96.4	0.00
기타	4.17	2.08	0.00	2.08	0.00	91.67
Total	10.91	11.37	58.4	11.37	6.75	1.20
2011~2012년						
구분	1인	부부	부부+자녀	3세대	한 부모	기타
1인	95.49	2.44	0.74	0.59	0.44	0.3
부부	2.35	90.27	6.96	0.34	0.08	0.00
부부+자녀	0.17	2.28	95.92	0.65	0.95	0.03
3세대	2.07	3.45	4.83	88.05	0.92	0.69
한 부모	5.65	0.24	0.94	0.94	91.53	0.71
기타	10.59	0.00	0.00	1.18	1.18	87.06
Total	21.28	18.54	45.68	6.52	6.67	1.32

한편, 2장에서 살펴 본 가구주의 여성화, 고령화 현상이 노동패널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가구주 성별 구성비의 변화 추이(〈그림 IV-2〉)와 가구주 연령의 변화 추이(〈그림 IV-3〉)를 살펴보았다.

〈그림 IV-2〉 가구주 성별 구성비의 변화 추이(2001~2012년)



〈그림 IV-3〉 가구주 연령별 비중의 변화 추이(2001~2012년)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2001년 15%에서 2012년 23%로 증가하였다. 가구주 연령별 변화 추이를 보면, 64세까지의 가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가구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그림 IV-2>, <그림 IV-3>을 통해 가구주의 1인화, 여성화, 고령화 현상이 노동패널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주요 변수들

본 연구에서 보험 수요는 가구가 조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민영보험 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개인의 보험 수요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가 보험 수요의 결정단위가 된다.

저축성, 보장성, 종신보험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자로 분류했다. 노동패널의 납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보험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보험료에는 저축성, 보장성, 종신보험을 포함하였다.

설명 변수에는 크게 가구의 경제적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와 가구주의 인적 특성 변수를 포함시켰다.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로 소득, 순자산, 자가 소유 여부, 맞벌이를 포함시켰다. 가구소득은 전년도<sup>13)</sup> 한 해 동안 얻은 연간 가구 총 소득이며 세금을 제외한 세후 소득이다. 총 소득에는 근로, 금융, 부동산, 사회보험, 이전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패널은 자산항목으로 거주주택 시가(전월세 보증금 포함),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현금 및 예금, 주식자산(주식·채권·신탁 포함), 저축성보험자산<sup>14)</sup>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응답자가 부동산 가격을 잘 모를 경우에 대비해 가격 범위를 선택하도

13) 소득, 저축, 납입보험료는 모두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것을 조사하고 있음.

14) 저축성보험은 만기도래 혹은 해지 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항목에 포함시킴.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 상품의 특성상 보장성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상에 나타난 값은 실제 보험자산보다 작음. 따라서 절대치보다는 가구별 패턴이나 변화추세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록 되어 있는데, 값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범위의 중간 값을 시가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주의 인적 특성 변수로는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종사상 지위로 자영업자 여부를 포함시켰다. 교육수준 변수는 학력과 이수여부를 결합하여 교육 연수를 생성시켰다. 가구 유형별, 가구주 연령별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 다. 분석결과

### 1) 가구의 보험 가입 결정 요인

허들모형을 이용한 보험가입 결정 요인 분석 결과는 <표 IV-3>의 세 칼럼 중 왼쪽 두 칼럼에 나와 있다.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수가 1단계와 2단계 추정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1단계 추정 결과를 보면, 자가 소유 여부와 교육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구 유형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유형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가구를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가구 변수의 계수는 기타 가구와 비교해서 보험 가입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과를 보면 1인 가구만이 기타 가구에 비해 보험가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는 연령제곱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가입과 연령이 역 U자형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 보험료 추정식 결과를 살펴보면, 기타 가구의 보험료에 비교해서 1인 가구는 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부부+자녀 가구는 10%, 3세대이상 가구는 16% 정도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가구 특성 변수들 가운데 보험료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는 소득이었고 맞벌이 여부가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 변수는 보험가입 단계와 납입보험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보험료에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수를 보험료의 %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V-3〉 가구의 보험 가입 결정 요인(2001~2012년)

구분	허들모형		토빗모형
	가입여부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
1인 가구	-0.10*** (0.03)	-0.20*** (0.02)	-0.83*** (0.10)
부부 가구	0.06** (0.03)	-0.03 (0.02)	-0.13 (0.10)
부부+자녀	0.26*** (0.02)	0.10*** (0.02)	0.77*** (0.09)
3세대 이상 가구	0.31*** (0.03)	0.16*** (0.02)	1.06*** (0.11)
연령	0.04*** (0.00)	0.005* (0.00)	0.18*** (0.01)
연령제곱	-0.0006*** (0.00)	-0.0002*** (0.00)	-0.00*** (0.00)
소득	0.54*** (0.01)	0.42*** (0.01)	1.46*** (0.03)
순자산	0.07*** (0.01)	0.05*** (0.00)	0.32*** (0.02)
맞벌이(=1)	0.14*** (0.02)	0.08*** (0.01)	0.29*** (0.05)
자가 소유(=1)	-0.01 (0.02)	-0.003 (0.01)	-0.17*** (0.05)
남성(=1)	-0.23*** (0.02)	-0.01 (0.02)	-0.49*** (0.08)
교육	-0.0005 (0.00)	-0.002 (0.00)	0.02** (0.01)
자영업(=1)	-0.05*** (0.01)	0.07*** (0.01)	0.07 (0.05)
Constant	-4.51*** (0.11)	1.40*** (0.08)	-13.84*** (0.40)
Year Effect	Yes	Yes	Yes
sigma	0.75***(0.00)		3.00***(0.01)
log likelihood	-63502.1		-97579.1
Number of obs	55,666		
Left censored obs	24,067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0, \*\* p<.05, \*\*\* p<.01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흥미로운 것은 가구 특성 변수 중에 성별과 자영업이 보험 가입 단계와 보험료 결정 단계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지만(통계적으로 유의함), 2단계 보험료 결정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성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져 여성 가구주가 남성에 비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으나, 보험 가입 가구들 가운데서는 남성 가구주의 경제력이 더 나은 까닭에 보험료에서는 성별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역시 보험 가입 확률은 낮으나 일단 가입한 가구들 가운데서는 자영업자일수록 보험료가 더 높게 나타난다.

허들모형의 강건성 테스트를 위해 토빗모형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자영업과 성별 변수는 허들모형과 토빗모형에서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변수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험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의 추정계수가 서로 반대 부호이거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는 토빗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일 수 없는 것으로 허들모형의 장점이라 하겠다. 토빗과 허들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 지 여부는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이용해 검증할 수 있다. 우도비검정량은 68154.1로  $\chi_{24,0.05}^2 = 36.4$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토빗모형이 적합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Heckman의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허들모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말해둔다.

## 2) 보험 종류별 분석

앞 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절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보험 종류별로 납입보험료 결정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에서 구분하고 있는 보험 종류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은 허들모형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구분은 설문응답자가 생각하고 있는 구분일 뿐, 원래 보험의 분류에 따른 구분은 아님을 유념하기 바란다. 허들모형의 1단계인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 요인은 <표 IV-4>, 2단계 납입보험료 결정 요인은 <표 IV-5>에 나와 있다. 보장성보험은 전

체 납입보험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총 납입보험료의 결과(〈표 IV-3〉)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확률과 납입보험료 수준은 기타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모두 낮은 반면, 부부+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종신보험의 경우는 보험 가입 확률이 부부+자녀 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납입보험료의 경우는 1인 가구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경우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금 상품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연금 상품 가입 확률과 연금액이 다른 가구에 비해 더 높은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에서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부 가구 및 부부+자녀 가구의 연금 납입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금과 보장성보험의 가입 유인이 가구 유형별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부부+자녀와 3세대 이상 가구를 보면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축성보험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가구의 경우 주택 구매 및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의 부담으로 인해 저축액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장성, 종신, 연금 상품에서는 연령에 따라 역 U자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저축성보험에서는 다른 상품과 달리 가입 확률에서 연령에 따라 U자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축성 상품의 납입보험료에는 가구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살펴 본 가구 유형 결과와 비슷한 이유로 보인다. 자녀 양육기에 저축성보험의 가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구 특성 변수 가운데 성별 변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에서 남성 가구주의 납입보험료가 여성 가구주의 납입보험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 가구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에서 가입 규모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4〉 보험 종류별 가입 여부 결정 요인(2001~2012년)

구분	저축성	보장성	종신	연금
1인 가구	-0.11*** (0.04)	-0.12*** (0.03)	-0.07 (0.05)	0.19*** (0.04)
부부 가구	-0.01 (0.04)	0.04 (0.03)	0.01 (0.05)	0.06 (0.04)
부부+자녀	0.22*** (0.04)	0.24*** (0.02)	0.08* (0.04)	0.14*** (0.04)
3세대 이상	0.24*** (0.04)	0.32*** (0.03)	0.08 (0.05)	0.13*** (0.04)
연령	-0.03*** (0.00)	0.05*** (0.00)	-0.01 (0.01)	0.03*** (0.01)
연령제곱	0.0001** (0.00)	-0.001*** (0.00)	-0.0002*** (0.00)	-0.0005*** (0.00)
소득	0.36*** (0.01)	0.50*** (0.01)	0.52*** (0.02)	0.49*** (0.01)
순자산	0.05*** (0.01)	0.05*** (0.01)	0.08*** (0.01)	0.09*** (0.01)
맞벌이	0.07*** (0.02)	0.11*** (0.01)	0.17*** (0.02)	0.12*** (0.02)
자가 소유	-0.01 (0.02)	0.01 (0.02)	-0.02 (0.02)	-0.01 (0.02)
성별	-0.06** (0.03)	-0.20*** (0.02)	-0.08*** (0.03)	-0.13*** (0.03)
교육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자영업(=1)	-0.02 (0.02)	-0.05*** (0.01)	-0.07*** (0.02)	-0.04** (0.02)
Constant	-3.33*** (0.15)	-4.45*** (0.11)	-5.04*** (0.18)	-5.70*** (0.16)
Year Effect	Yes	Yes	Yes	Yes
Obs.	55645	55624	41615	55642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0, \*\* p<.05, \*\*\* p<.01, 허들모형의 1단계 결과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표 IV-5〉 보험 종류별 납입보험료 결정 요인(2001~2012년)

구분	저축성	보장성	종신	연금
1인 가구	0.08 (0.07)	-0.21*** (0.02)	-0.11** (0.05)	0.11** (0.06)
부부 가구	-0.01 (0.07)	-0.02 (0.02)	0.02 (0.05)	0.05 (0.06)
부부+자녀	-0.21*** (0.06)	0.12*** (0.02)	-0.02 (0.04)	-0.07 (0.05)
3세대 이상	-0.22*** (0.06)	0.17*** (0.02)	0.02 (0.05)	-0.09* (0.05)
연령	0.01 (0.01)	0.01*** (0.00)	0.02*** (0.01)	0.01* (0.01)
연령제곱	0.0001 (0.00)	-0.0002*** (0.00)	-0.0002*** (0.00)	-0.0001* (0.00)
소득	0.38*** (0.02)	0.39*** (0.01)	0.22*** (0.02)	0.37*** (0.02)
순자산	0.06*** (0.01)	0.04*** (0.00)	0.02* (0.01)	0.04*** (0.01)
맞벌이	0.05** (0.02)	0.07*** (0.01)	0.05*** (0.02)	0.03 (0.02)
자가 소유	-0.04 (0.03)	0.01 (0.01)	-0.04* (0.02)	0.02 (0.02)
성별	0.09** (0.04)	-0.02 (0.02)	0.06** (0.03)	-0.05 (0.03)
교육	-0.01* (0.00)	-0.00** (0.00)	0.002 (0.00)	0.02*** (0.00)
자영업(=1)	0.12*** (0.03)	0.08*** (0.01)	0.10*** (0.02)	0.15*** (0.02)
Constant	1.36*** (0.21)	1.47*** (0.08)	2.73*** (0.18)	1.01*** (0.18)
Year Effect	Yes	Yes	Yes	Yes
sigma	0.79*** (0.01)	0.73*** (0.00)	0.57*** (0.01)	0.68*** (0.01)
Obs.	55645	55624	41615	55642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0, \*\* p<.05, \*\*\* p<.01, 허틀모형의 2단계 결과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

## V.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본 절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가 가구의 보험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1~2012년 동안 변화한 연령과 가구 유형의 구성이 이 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요인분해법(Decomposition Method)

흔히 요인분해 혹은 기여도 분석으로 불리는 Decomposition Method는 그룹 간 (인구특성, 기간 등) 차이를 개별 요인들의 영향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그룹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특정 설명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수량적 변동을 개별 요인들의 기여로 분해하는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초기 요인분해 방법인 Oaxaca-Blinder decomposition은 평균을 요인분해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분포 자체를 분해하는 방법<sup>16)</sup>을 택하고 있다. 요인분해 관련 기존 이론에 대한 정리는 Fortin et al. (2011)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러한 Decomposition Method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의 임금차별을 설명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

16) Di Nardo, Fortin, Lemieux(DFL), Firpo, Fortin, Lemieux(FFL), Chernozhukov Fernandez ValMelly(CFVM) 등이 대표적인 연구임.

데도 유용한 방법이다. 박경숙(2003)은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인구구성의 변화가 단독 거주 노인 비율의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김문길 외(2012)는 OECD(2008)의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해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별 분해법(Detailed Decom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다른 설명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Di Nardo, Fortin, and Lemieux(DFL)의 가중치조정법(Re-weighting Method)을 이용하여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Fortin et al.(2011)을 따르고 있다.

## 2.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

### 가. 개요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를 이용하면 보험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따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방법은 Aggregate Decomposition인 DFL 가중치조정법이 변수의 개별적 효과를 따로 분해하지 못하는 것에 비교해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인분해는 크게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와 구조효과(structural effect)로 나뉜다. 구성효과는 독립 변수 값의 변화로 설명되는 보험료의 변화분이며, explained effect라고도 한다. 구조효과는 두 시점의 구조적 환경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효과로서, unexplained effect라고도 한다. 변수 값의 변화가 아닌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변해서 생기는 효과이다. 보통 구조효과(structural effect)

17) 1990년 가구구조 분포를 2011년도에 적용하여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구가중치를 계산하고, 2011년도 표본에 적용하여 반사실적 불평등지수를 도출한 후 실제 불평등지수와 비교함.

는 2001년과 2012년 사이 전체 보험료 변화 중에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를 빼 값으로 정의된다. 교육수준이 남녀의 임금 격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는 예를 들어 보면, 구성효과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남녀의 임금격차를 말하며, 구조효과는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관심은 해당 기간 동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보험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효과에 해당된다.

#### 나. 모형<sup>18)</sup>

본 연구는 주어진 기간 사이의 납입보험료 변화를 분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은 두 시점을 의미한다. 2001년을 A라 하고, 2012년을 B라 하자. Y는 납입보험료를, X는 설명 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납입보험료(Y)는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Y_l = X_l' \beta_l + \epsilon_l, \quad E(\epsilon_l) = 0, \quad l = A, B$$

두 시점의 평균 납입보험료 차이를 R이라 하면 R은 두 시점의 납입보험료 기댓값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다.

$$R = E(Y_A) - E(Y_B) = E(X_A)' \beta_A - E(X_B)' \beta_B \quad (1)$$

식 (1)을 변형시키면 아래와 같은 이중분해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R &= Q + U, \\ Q &= [E(Y_A) - E(Y_B)]' \beta^*, \\ U &= E(X_A)' (\beta_A - \beta^*) + E(X_B)' (\beta^* - \beta_B) \end{aligned}$$

여기서 Q는 그룹 간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구성효과이며, U는 구조효과에 해당된다.

18) 변수별 분해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Jann(2008)을 참고하기 바람.

이때  $\beta^*$ 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beta^* = \beta_A$  혹은  $\beta^* = \beta_B$  일 수 있다. 여기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beta^* = \beta_B$ 로 가정한다.

표본 분산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의 평균 추정치는  $\bar{Y} = \bar{X}'\hat{\beta}$ 이며,  $\bar{X}$ 와  $\hat{\beta}$ 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bar{Y}$ 의 분산은 식 (2)와 같다.  $V(\bar{X})$ 와  $V(\hat{\beta})$ 은 variance-covariance matrices이다.  $\hat{V}(\hat{\beta})$ 은 식 (2)에 추정치를 대입함으로써 쉽게 계산된다.

$$V(\bar{X}'\hat{\beta}) = E(\bar{X})' V(\hat{\beta})E(\bar{X}) + E(\hat{\beta})' V(\bar{X})E(\hat{\beta}) + \text{trace} [ V(\bar{X}) V(\hat{\beta}) ] \quad (2)$$

변수별 분해(Detailed Decomposition)는 추정치를 개별 변수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때 구성효과의 경우는 개별 기여도의 합이 전체 기여도가 되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다.  $\bar{X}_i$ 는  $i$  변수의 평균이며,  $\hat{\beta}_i$ 는 각 변수의 추정계수라 하면, 각 개별 변수의 추정치는 아래 식을 통해 계산된다.

$$\hat{Q} = (\bar{X}_A - \bar{X}_B)' \hat{\beta}_A = (\bar{X}_{1A} - \bar{X}_{1B})' \hat{\beta}_{1A} + (\bar{X}_{2A} - \bar{X}_{2B})' \hat{\beta}_{2A} + \dots$$

#### 다. 분석 결과

납입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앞 절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 분석에서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값의 변화가 2001년과 2012년 사이 보험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인 총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는 약 51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변수 값 변화 이외의 환경변화가 설명하는 구조효과(structural effect)는 약 63만 2천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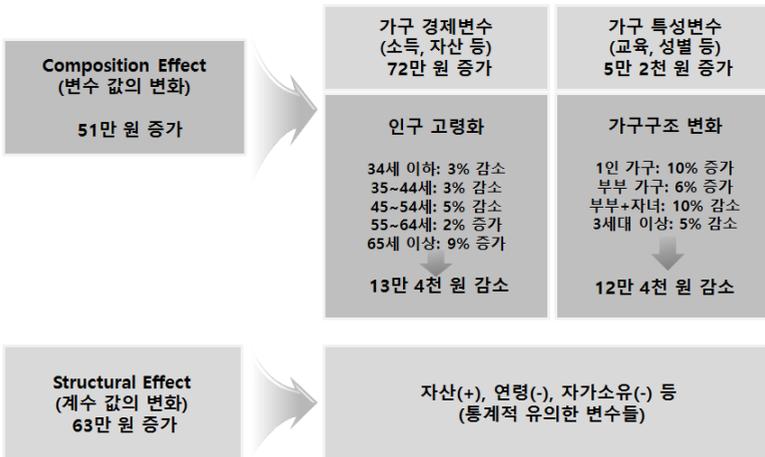
이를 다시 세분화시켜 개별 변수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자산을 비롯한 가구의 경제변수와 기타 가구 특성 변수들은 보험료를 증가시킨 반면,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험료를 감소시켰다. 가구의 납입보험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경제변수 그룹으로 보험료 72만 원을 증가시켰고, 가구 특성변수는 5만 2천 원의 보험료를 증가시켜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의 납입보험료를 13만 4천 원 감소시켰고, 가구구조의 변화는 12만 4천 원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관심은 2001년과 2012년 사이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납입보험료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가에 있다. 그런데 가구의 경제변수와 특성변수의 변화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화 방향과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화량의 절대 값을 모두 더한 값에서 각각의 비중을 계산해야 한다.

총 변화량은 166만 2천 원으로 이는 구성효과 변화량인 약 103만 원(=12.4+13.39+72+5.18)과 구조효과 변화량인 63만 2천 원을 더한 값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총 보험료 변화량의 8.1%(=(13.39/166.2)\*100)를, 가구구조의 변화는 총 보험료 변화량의 7.5%(=(12.4/166.2)\*10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전체 보험료 변화량의 15.5%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구성효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구성효과에 따른 보험료 변화량의 17.3%를, 가구구조 변화는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구성효과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화의 33.4%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V-1〉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



〈표 V-1〉 변수별 분해 분석 결과

(단위: 만 원)

구분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총 보험료 변화(평균값)	114.6	6.69	0.00
2012년	250.2	5.45	0.00
2001년	135.6	3.88	0.00
Explained(composition effect)	51.4	6.11	0.00
가구구조 (1인, 부부, 부부+자녀, 한 부모, 3세대)	-12.4	2.55	0.00
인구 고령화 (모든 연령 포함)	-13.39	2.12	0.00
경제변수 (소득, 자산, 자가 소유, 맞벌이)	72.00	4.25	0.00
기타 특성 (가구주 성별, 교육, 자영업 등)	5.18	2.19	0.02
Unexplained(Structural effect)	63.22	7.77	0.00

No. of Obs = 9492

주: Coefficient에 해당하는 값들은 가구의 연평균 납입보험료임.  
 자료: 『노동패널』, 각 연도.

### 3.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 가. 분석 모형

이 절에서는 2001년의 인구와 가구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2012년의 보험료는 실제 보험료와 얼마나 다를 것인지를 계산한다. 이를 위해 Di Nardo et al.(1996)에 의해 제안된 DFL 가중치 조정(Re-weighting)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Oaxaca-Blinder의 평균분해나 분산분해 방식과 달리 반사실적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분석이 용이하고 효율적(efficiency) 추정치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 가구는 가구 유형 및 가구주 연령(X), 납입보험료(Y), 연도(T=2001, 2012)의 세 가지 벡터들이 결합된 결합분포함수(F(Y, X, T))로 표현될 수 있다. DFL의 가중치조정법의 원리는 2012년 가구의 납입보험료 분포에 2001년의 인구 및 가구구조(가구 유형 및 가구주 연령 분포)를 결합시켜 2012년 가상의 납입보험료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가상의 2012년 납입보험료와 실제 2012년 납입보험료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가구주 연령과 가구 유형 분포의 변화가 가구의 납입보험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2012년의 개별 가구의 납입보험료가 갖는 가중치를 2001년의 인구 및 가구구조에 상응하는 가중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성향점수조정(propensity score re-weighting) 방식으로 가중치조정함수(re-weighting factor)를 추정한다. 그 다음 가중치조정함수를 이용해 2001년의 가구특성 변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가상의 2012년 납입보험료 분포를 계산한다.

인구 및 가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에는 연령더미와 가구 유형더미를 포함하였다. 연령과 가구 유형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분류를 이용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모형은 Di Nardo(2002)를 따랐다.

## 나. 분석 결과

분석결과 2001년과 2012년의 가구 평균 납입보험료는 각각 136만 원과 250만 원이었고, 2012년 가상의 보험료는 30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12년 사이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가구의 납입보험료가 45만 원 감소한 것이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인구 및 가구구조가 유지되었다면 165만 원 증가할 수 있었던 납입보험료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45만 원만큼 상쇄되어 결국 114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2〉 반사실적 분석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

## Ⅵ. 요약 및 시사점

---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정량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분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약 13만 원 정도 연평균 납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가구 구성의 변화로는 약 12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다.<sup>19)</sup> 따라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는 2001~2012년 사이 가구의 납입보험료 변화량의 18.3%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변수를 제외한 가구 특성 변수가 약 5만 원 정도를 변화시킨 점을 감안할 때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2035년까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험산업은 이러한 보험 수요 측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 및 가구 변화의 영향은 보험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품별 주요 가입층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은 모든 연령대와 가구 유형에서 비교적 고르게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관련 보험 상품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망보장보험 수요는 핵심 가입층이라 할 수 있는 35~44세 연령대의 전통적 가구 유형과 그 외 가구의 가입률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보장보험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건강보험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 종류별 회귀분

---

19) 본고 V-2의 결과 참조.

석 결과를 보면 연금 상품의 경우 1인 가구의 보험 가입률과 가입 규모 모두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장성보험이나 종신보험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가 소비자의 주·객관적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켜-사망보장 수요가 줄고 장수리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노후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보험의 주요 소비 계층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로 인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비중이 2000년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며, 향후 2035년에는 5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비중은 1인 가구의 25.4%, 부부 가구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의 주요 가입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핵심 가입 계층이라 할 수 있는 30~55세와 부부+자녀 가구의 보험 가입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과 1인 가구, 부부 가구가 전체 보험 가입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 구매력 측면에서도 1인, 부부, 고령 가구의 경우 소득분포에서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과 부유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보험 가입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2년 동안 이들 가구의 보험 가입률 증가폭은 다른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보험 상품은 주로 전통적 가구의 보험 수요에 맞춰 있다. 1인, 부부, 여성, 고령 가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관적 위험보장 니즈를 조사하여 그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낮아 자신에 맞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령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여성 설계사들이 주로 가정주부와의 대면을 통해 보험 모집을 하던 전통적 채널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가구의 증가에 맞춰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들의 주요 생활 반경을 조사하고,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 소비자의 소득분포와 구매력이 변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악화로 빈곤층과 중산층의 보험가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목할 점은 소득분배의 영향은 연령별,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5세 이상 연령대의 보험구매력이 개선되고 있어 보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유형별로는 보험의 핵심 구매층이 아닌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의 구매력도 함께 개선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코호트 효과가 존재하여 현 노인 세대에 비해 예비 노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수준 개선이 확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험 소비 계층이 과거에 비해 더욱 양분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상위소득가구, 특히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령층 가구의 등장은 자산관리, 유산상속 등의 니즈를 포함하는 개인별 맞춤형 보험 상품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반면, 젊은 세대들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보험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보험 가입 여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중산층의 보험 가입 여력 역시 감소하고 있어 저가의 보험 상품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위험보장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값이 싼 정기보험, 제3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판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가의 보험 상품은 모집 수수료가 낮아 설계사 채널의 유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저가 상품 채널의 개발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은 새로운 저가 채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저가 채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생애주기 예측』, 용역 보고서.
- 공세권 외(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권순일(2011), 「인구노령화와 생명보험 수요: 연령-세대-연도효과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011, 제 22권 제 2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8. 6),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김문길 · 김태완 · 박형준(2012),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석영 · 김세중(2014),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CEO 리포트, 보험연구원.
- 김영철 · 김연수 · 김인경((2011), 「가구 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유경 · 진미정 · 송유진 · 김가희(2013), 「가구 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진 · 김학민 · 안옥희(2000), 「단독 가구 고령자가 거주하는 독립주택의 주거환경 실측」,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표논문집』, 제11권, pp. 91~95.
- 민인식 · 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 박문수 · 고대영 · 구진경 · 이경희(2013), 『인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박시내 · 박준오 · 류광현(2013),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1) -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 특성분석』.
- 보건복지부(2011), 『노인 세대 소득불평등과 해소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 보험연구원(2014),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성명재 · 박기백(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pp. 5~37.
- 유승동 · 김주영(2014),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령자 가계를 중심으로

- 로」, 보건사회연구 34(1), pp. 52~73.
- 윤석명·손창균·양혜진·이힘찬·김은주·최미선 외(2012),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윤성훈 외(2011), 『저출산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험연구원.
- 이상호·유경원·이상현(2011),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이론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pp. 39~75.
- 이순재·양성문(2011),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생명보험 수요 요인 분석: 종신, 질병상해,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 90집, pp. 1~25.
- 이지순 외(2002), 「신수요 계층의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계획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 pp. 53~60.
- 이진면·한정민·김재진·이용호·김바우(2013), 「인구 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연구원.
- 최석규(2011), 「보험 수요의 미시적 결정 요인분석」, 한국산업경제저널, 제3권 제3호, pp. 105~126.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 \_\_\_\_\_(2013),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분석』.
- \_\_\_\_\_(2013), 『2013년 혼인 이혼 통계』.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각 연도.
- 황수경(2011),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 33권 제 3호.
- Beck, Thorsten and Ian Webb(2003), “Economic,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life insurance consumption across countr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7, No. 1, pp. 51~88.
- Bernheim, B. Douglas(1992),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9(5), pp. 899~927.

- Browne, Mark J. and Kihong Kim(1993),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Life Insurance Demand”,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0, No. 4, pp. 616~634.
- Cragg, J. G.(1971), “Some statistical model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with application to the demand for durable goods”, *Econometrica*, 39, pp. 829~844.
- Di Nardo, J., N.M.Fortin, and T.Lemieux(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pp. 1001~1044.
- \_\_\_\_\_ (2002), “Propensity score reweighting and changes in wage distributions”, University of Michigan, mimeograph.
- Frees, Edward W. and Yunjie Sun(2010), “household life insurance demand—a multivariate two part model”, *North American Actuarial Journal*, Vol 14, Issue 3.
- Fortin, Nicole, Thomas Lemieux, Sergio Firpo(2011), “Decomposition methods” Chap. 1 in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4, pp. 1~102 (available as NBER Working Paper 16045).
- Jann, Ben(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Vol. 8, No. 4, pp. 453~479.
- Lee, Soon-Jae, SoonIl Kwon, and SeokYoung Chung(2010), “Determinants of Household Demand for Insurance: The Case of Korea”, *The Geneva Papers*, 35, pp. S82~S91.
- Li, Donghui, Fariborz Moshirian, Pascal Nguyen, and Timothy Wee(2007),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in OECD Countri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4. Issue 3, pp. 637~652.
- Lin, Yijia and Martin F. Grace(2007), “household life cycle protection: life insurance holdings, financial vulnerability, and portfolio implications”,

-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4, No. 1, pp. 141~173.
-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Showers, Vince E. and Joyce A. Shotick (1994)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Demand for Insurance: A Tobit Analysi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1, No, 3, pp. 492~502.
- Zietz, Emily Norman (2003), “An Examination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Vol. 6, No. 2, pp.159~191.

# 부록 I.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표 부록 I-1〉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Mean	SD	Min	Max	Obs.
보험 가입 여부	overall	0,54	0,50	0,0	1,0	N=64741
	between	-	0,38	0,0	1,0	n=8664
	within	-	0,35	-0,4	1,5	-
연 납입 보험료 (만 원)	overall	207,52	330,89	0,0	4980,0	N=64741
	between	-	238,59	0,0	3000,0	n=8664
	within	-	231,78	-1976,5	4288,5	-
가구주 연령	overall	51,03	14,84	15,0	100,0	N=64732
	between	-	15,34	16,0	91,0	n=8664
	within	-	3,49	7,5	86,6	-
연소득 (만 원)	overall	3125,31	3179,83	0,0	121500	N=64741
	between	-	2288,29	0,0	47373	n=8664
	within	-	2218,28	-30328,0	109140	-
순자산 (백만 원)	overall	14,84	29,31	-489,90	1620	N=64741
	between	-	22,01	-162,78	463,57	n=8664
	within	-	17,95	-451,34	1171,28	-
맞벌이	overall	0,27	0,44	0,0	1,0	N=64741
	between	-	0,35	0,0	1,0	n=8664
	within	-	0,27	-0,6	1,2	-
자가 소유	overall	0,59	0,49	0,0	1,0	N=64701
	between	-	0,44	0,0	1,0	n=8660
	within	-	0,26	-0,3	1,5	-
가구주 성별	overall	0,80	0,40	0,0	1,0	N=64701
	between	-	0,40	0,0	1,0	n=8660
	within	-	0,13	-0,1	1,7	-
교육 연수	overall	11,03	4,37	0,0	26,0	N=63337
	between	-	4,35	0,0	26,0	n=8564
	within	-	0,74	-2,3	26,0	-
자영업	overall	0,24	0,43	0,0	1,0	N=64741
	between	-	0,36	0,0	1,0	n=8664
	within	-	0,22	-0,7	1,2	-

주: 패널 조사가구 전체의 기초통계량임.  
자료: 노동패널 4~15차.

〈표 부록 1-2〉 가구 유형별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유형	변수	Mean	SD	Min	Max	Obs.
1인 가구	보험 가입 여부	0.26	0.44	0.0	1.0	N=10947 n=2506
	납입보험료	61.84	158.04	0.0	3600.0	N=10947 n=2506
	소득	1407.62	1474.28	0.0	34878.1	N=10947 n=2506
	가구주연령	53.99	19.56	15.0	100.0	N=10947 n=2506
	순자산	6441.51	15620.56	-299600.0	410250.0	N=10947 n=2506
	맞벌이	0.00	0.00	0.0	0.0	N=10947 n=2506
	자가 소유	0.38	0.49	0.0	1.0	N=10929 n=2501
	성별	0.39	0.49	0.0	1.0	N=10936 n=2504
	교육	8.84	5.40	0.0	26.0	N=10935 n=2503
	자영업	0.14	0.34	0.0	1.0	N=10947 n=2506
부부 가구	보험 가입 여부	0.35	0.48	0.0	1.0	N=9853 n=2515
	납입보험료	120.79	263.91	0.0	4200.0	N=9853 n=2515
	소득	2652.85	3704.20	0.0	121500.0	N=9853 n=2515
	가구주연령	59.59	16.57	20.0	93.0	N=9853 n=2515
	순자산	18570.4	31000.54	-97700.0	980500.0	N=9853 n=2515
	맞벌이	0.29	0.45	0.0	1.0	N=9853 n=2515
	자가 소유	0.69	0.46	0.0	1.0	N=9847 n=2513
	성별	0.95	0.21	0.0	1.0	N=9853 n=2515
	교육	10.41	4.44	0.0	26.0	N=9663 n=2457
	자영업	0.25	0.43	0.0	1.0	N=9853 n=2515
부부 + 자녀	보험 가입 여부	0.71	0.46	0.0	1.0	N=32827 n=4969
	납입보험료	292.25	370.39	0.0	4980.0	N=32827 n=4969
	소득	4486.01	3506.18	0.0	113250.3	N=32827 n=4969
	가구주연령	46.26	10.57	21.0	97.0	N=32827 n=4969
	순자산	16576.6	30926.84	-489900.0	1620000.0	N=32827 n=4969
	맞벌이	0.39	0.49	0.0	1.0	N=32827 n=4969
	자가 소유	0.61	0.49	0.0	1.0	N=32819 n=4969
	성별	0.96	0.19	0.0	1.0	N=32819 n=4967
	교육	12.44	3.31	0.0	26.0	N=31910 n=4876
	자영업	0.27	0.44	0.0	1.0	N=32827 n=4969

〈표 부록 1-2〉의 계속

유형	변수	Mean	SD	Min	Max	Obs.
3세대 이상	보험 가입 여부	0.63	0.48	0.0	1.0	N=4564 n=864
	납입보험료	257.45	385.47	0.0	4800.0	N=4564 n=864
	소득	4393.75	4174.1	0.0	97561.0	N=4564 n=864
	가구주연령	54.79	12.69	26.0	93.0	N=4564 n=864
	순자산	19999.6	39445.3	-250000.0	900000.0	N=4564 n=864
	맞벌이	0.34	0.47	0.0	1.0	N=4564 n=864
	자가 소유	0.80	0.40	0.0	1.0	N=4564 n=864
	성별	0.83	0.37	0.0	1.0	N=4558 n=863
	교육	10.39	4.39	0.0	26.0	N=4392 n=853
	자영업	0.29	0.45	0.0	1.0	N=4564 n=864
기타	보험 가입 여부	0.42	0.49	0.0	1.0	N=6550 n=1378
	납입보험료	122.09	229.84	0.0	2460.0	N=6550 n=1378
	소득	2534.69	2949.22	0.0	119025.8	N=6550 n=1378
	가구주연령	54.49	13.82	17.0	94.0	N=6550 n=1378
	순자산	11007.1	23920.4	-69700.0	717000.0	N=6550 n=1378
	맞벌이	0.04	0.20	0.0	1.0	N=6550 n=1378
	자가 소유	0.53	0.50	0.0	1.0	N=6542 n=1378
	성별	0.39	0.49	0.0	1.0	N=6544 n=1375
	교육	9.15	4.36	0.0	26.0	N=6437 n=1357
	자영업	0.20	0.40	0.0	1.0	N=6550 n=1378

〈표 부록 1-3〉 가구주 연령별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연령	변수	Mean	SD	Min	Max	Obs.
~34	보험 가입 여부	0.64	0.48	0.0	1.0	N=9543 n=2650
	납입보험료	219.08	283.10	0.0	4200.0	N=9543 n=2650
	소득	3211.37	2422.61	0.0	38053.2	N=9543 n=2650
	가구주연령	30.42	3.08	15.0	34.0	N=9543 n=2650
	순자산	7225.45	12094.07	-69700.0	380000.0	N=9543 n=2650
	맞벌이	0.22	0.41	0.0	1.0	N=9543 n=2650
	자가 소유	0.28	0.45	0.0	1.0	N=9527 n=2646
	성별	0.77	0.42	0.0	1.0	N=9541 n=2650
	교육	13.89	2.06	0.0	26.0	N=9334 n=2597
	자영업	0.10	0.30	0.0	1.0	N=9543 n=2650
35 ~ 44	보험 가입 여부	0.73	0.44	0.0	1.0	N=15013 n=3362
	납입보험료	299.06	359.75	0.0	4800.0	N=15013 n=3362
	소득	4156.29	3409.05	0.0	110463.4	N=15013 n=3362
	가구주연령	39.50	2.86	35.0	44.0	N=15013 n=3362
	순자산	12008.96	18712.51	-199950.0	331000.0	N=15013 n=3362
	맞벌이	0.33	0.47	0.0	1.0	N=15013 n=3362
	자가 소유	0.49	0.50	0.0	1.0	N=15004 n=3362
	성별	0.89	0.31	0.0	1.0	N=15009 n=3360
	교육	13.41	2.74	0.0	26.0	N=14642 n=3297
	자영업	0.24	0.43	0.0	1.0	N=15013 n=3362
45 ~ 54	보험 가입 여부	0.65	0.48	0.0	1.0	N=14813 n=3064
	납입보험료	270.10	389.10	0.0	4980.0	N=14813 n=3064
	소득	4263.67	3547.07	0.0	80974.5	N=14813 n=3064
	가구주연령	49.41	2.84	45.0	54.0	N=14813 n=3064
	순자산	16529.38	31831.54	-489900.0	900000.0	N=14813 n=3064
	맞벌이	0.40	0.49	0.0	1.0	N=14813 n=3064
	자가 소유	0.63	0.48	0.0	1.0	N=14808 n=3064
	성별	0.87	0.33	0.0	1.0	N=14811 n=3063
	교육	11.56	3.35	0.0	26.0	N=14358 n=3016
	자영업	0.33	0.47	0.0	1.0	N=14813 n=3064

〈표 부록 1-3〉의 계속

구분	변수	Mean	SD	Min	Max	Obs.
55 ~ 64	보험 가입 여부	0.52	0.50	0.0	1.0	N=11689 n=2451
	납입보험료	187.07	318.04	0.0	4200.0	N=11689 n=2451
	소득	3768.46	4007.40	0.0	121500.0	N=11689 n=2451
	가구주연령	59.32	2.89	55.0	64.0	N=11689 n=2451
	순자산	20330.26	40904.09	-140750.0	1620000.0	N=11689 n=2451
	맞벌이	0.26	0.44	0.0	1.0	N=11689 n=2451
	자가 소유	0.74	0.44	0.0	1.0	N=11687 n=2451
	성별	0.80	0.40	0.0	1.0	N=11684 n=2449
	교육	9.81	3.86	0.0	26.0	N=11440 n=2411
	자영업	0.30	0.46	0.0	1.0	N=11689 n=2451
65~	보험 가입 여부	0.17	0.37	0.0	1.0	N=13674 n=2188
	납입보험료	48.73	175.38	0.0	3900.0	N=13674 n=2188
	소득	1842.64	3162.62	0.0	116696.1	N=13674 n=2188
	가구주연령	72.74	5.92	65.0	100.0	N=13674 n=2188
	순자산	16763.01	31157.33	-120000.0	980500.0	N=13674 n=2188
	맞벌이	0.10	0.30	0.0	1.0	N=13674 n=2188
	자가 소유	0.74	0.44	0.0	1.0	N=13666 n=2186
	성별	0.63	0.48	0.0	1.0	N=13665 n=2186
	교육	6.98	4.91	0.0	26.0	N=13563 n=2179
	자영업	0.19	0.39	0.0	1.0	N=13674 n=2188

---

## 부록 Ⅱ. 가구 유형의 조건부 전이확률

---

〈표 부록 Ⅱ-1〉 가구 유형의 조건부 전이확률(2001~2012년)

(단위: %)

구분	1인	부부	부부+자녀	3세대	한 부모	기타
1인	93.96	3.24	1.22	0.73	0.49	0.36
부부	3.04	86.76	9.17	0.65	0.11	0.27
부부+자녀	0.26	1.96	95.95	0.7	1.1	0.03
3세대	1.45	2.35	5.1	89.49	1.04	0.57
한 부모	5.45	0.25	1.35	1.5	91.14	0.31
기타	9.77	2.2	1.34	1.71	0.37	84.62
Total	16.2	14.79	51.6	8.84	7.15	1.42

주: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개별 가구 내에서 유형이 변화한 확률.  
자료: 노동패널 4~15차.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운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 조사자료집

---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 ■ 연차보고서

---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간행물

###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li> <li>- 영문보고서</li> </ul>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자약력

### 오승연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yoh@kiri.or.kr)

###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umi\_kim@kiri.or.kr)

조사보고서 2015-6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발행일 2015년 8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ISBN 979-11-85691-29-9 94320  
979-11-85691-02-2(세트)

정가 10,000원